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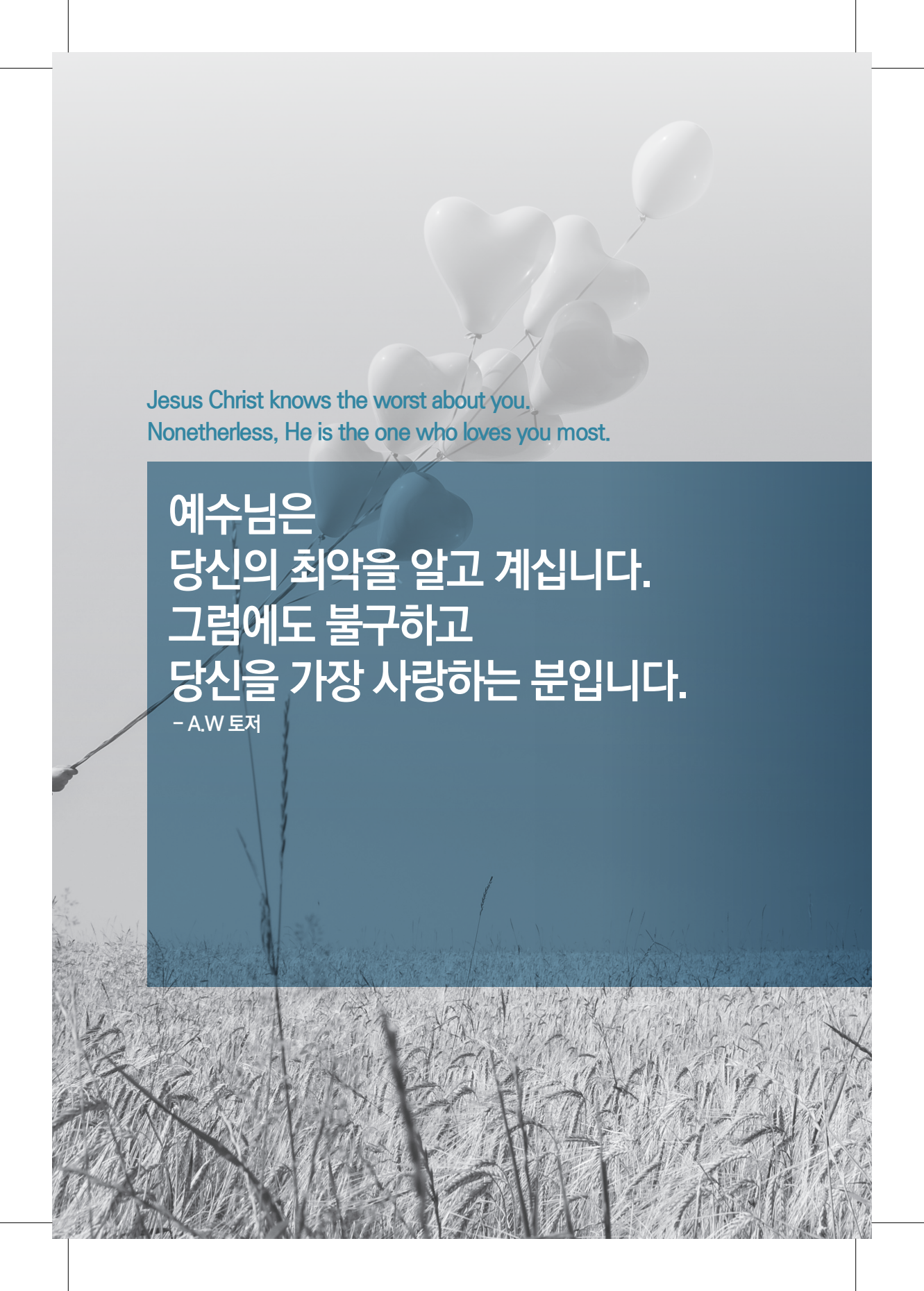


사랑하는 _____ 님께 드립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HOSOXNNA



Jesus Christ knows the worst about you.
Nonetheless, He is the one who loves you most.

예수님은
당신의 최악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분입니다.

- A.W 토저

English Standard Version
ESV



USPTO Reg. No. 3026768
USPTO Reg. No. 3746835
USPTO Reg. No. 3008631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Dear Lord 주님,

From February 2023, 2월에는

Time 시간

Place 장소

에서

sitting before you 주님 앞에 앉아

eating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읽고

praying to you, 주님께 아뢰며

will have a fellowship with you.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Name 이름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one hour)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0)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① Family BibleTime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온가족이 매일 성경 읽는 시간(Family BibleTime)을 가지세요. 자녀 제자화는 부모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② 찬송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은 묵상을 위한 기도와 같습니다.

③ 묵상본문

오늘 묵상할 성경구절의 범위

④ 통독본문

3년 1독을 위한 오늘 통독 범위

⑤ 여는기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06

2023 JAN
금요일 · Fri

빛의 자녀의 삶

Life as children
of light

④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44

5

맥잡기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며 빛의 자녀로 살라고 권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와 같이 교회도 성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1

새284장(통206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묵상본문

2

에베소서 5:3-14

통독본문

3 에베소서 5장

6

3음행과 온갖 더러운 짓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5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6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라

7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8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어시리라 하셨느니라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Reading Insight

Paul urged people to be imitators of God. As Paul was talking about the holy life of believers, he urged people to live as children of light. Like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he urged the church to be holy and blameless.

🎵 The Abundant Love of Jesus

Meditation	Reading Plan
Ephesians 5:3-14	Ephesians 5

³ But sexual immorality and all impurity or covetousness must not even be named among you, as is proper among saints.

⁴ Let there be no filthiness nor foolish talk nor crude joking, which are out of place, but instead let there be thanksgiving.

⁵ For you may be sure of this, that everyone who is sexually immoral or impure, or who is covetous (that is, an idolater), has no inheritance in the kingdom of Christ and God.

⁶ Let no one deceive you with empty words, for because of these things the wrath of God comes upon the sons of disobedience.

⁷ Therefore do not become partners with them;

⁸ for at one time you were darkness, but now you are light in the Lord. Walk as children of light

⁹ (for the fruit of light is found in all that is good and right and true),

¹⁰ and try to discern what is pleasing to the Lord.

¹¹ Take no part in the unfruitful works of darkness, but instead expose them.

¹² For it is shameful even to speak of the things that they do in secret.

¹³ But when anything is exposed by the light, it becomes visible,

¹⁴ for anything that becomes visible is light. Therefore it says, “Awake, O sleeper, and arise from the dead, and Christ will shine on you.”

7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바울은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이 무엇과 같다고 말했습니까? (5절)
What did Paul call the immoral, impure, or greedy person?
(v. 5)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9절)
What is the fruit of the light?
(v. 9)

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5 맥잡기

본문의 구조와 주제를 자세히 소개하여 묵상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6 영한 대역(ESV/개역개정)

영어와 한글을 함께 읽음으로 본문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합니다.

7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8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적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1 한 말씀 One Word

우리 영혼이
생명(life)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한 구절의
말씀의 검(sword)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3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 전역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3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LS복음연합감리교회, 김호용(CA)
가나안한민연합감리교회, 이상현(C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Do Not even Mention the Name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기 전, 손을 닦고 오라고 이야기 하며,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벽이나 바닥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자기 자리로 돌아오라"고 당부합니다. 손 닦은 것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벽을 쓸거나 바닥에 넘어져 손을 더럽힌 채로 돌아옵니다. 그 아이들은 간식을 먹을 수 없고, 다시 손을 닦고 와야 합니다.

바울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5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마 5:28)라고 하였고, 바울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3절)고 말합니다. 생각도 하지 말고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12절).

반면 우리는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할 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하며 다시 우상숭배하고, 외인이나 나그네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Before giving snacks to children, we usually ask them to wash their hands and urge them, "On your way back from the restroom, come straight back here without touching the wall or the floor." We know clean hands will get dirty again and washing them would be an exercise in futility. Nonetheless some kids wipe the wall with their hands or fall on the floor and get their hands dirty again on their way back. Those children cannot be given the snacks and must wash their hands again.

Paul called the immoral, impure, or greedy person an idolater (v. 5). Jesus said that anyone who looked at a woman lustfully had already committed adultery with her in his heart (Matt 5:28). Paul said, "Among you there must not be even a hint of sexual immorality, or of any kind of impurity, or of greed" (v. 3). Don't even think about them or speak about them because it is shameful even to mention them (v. 12).

On the other hand, we must get out of darkness and walk in the middle of light. As we decide to live as children of light, we will experience the fruit of goodness, righteousness and truthfulness and become imitators of God. As we are called to be the holy people of God, we must live life quite different from our old life. Will you go back to the life of an alien or wayfarer, living with the unbelievers and idolaters? Or do you want to walk in the middle of light with thanksgiving and as heirs to the kingdom of God?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친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4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5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6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7



4 오늘의 감사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5 Journaling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합니다.

6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자녀들의 매일 말씀묵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스티커를 활용해보세요

7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 Youtube 바로가기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Facebook / Youtube
공식계정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일독/말씀묵상

혼자서도 문제없다

1 시간을 정해놓고 읽기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등 혼자 조용히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고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기적인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찬송, 기도

Pleasant Hill에는 그날 부를 찬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을 통해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3 어떻게 읽을까?

성경을 읽으며, 단락이 끝날 때 그 단락의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키워드를 기록해 보세요. 핵심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밑줄도 그어 보십시오. 각 구절에 대한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구절에는 느낌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에는 물음표,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전구 표시 등.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고, 표시해 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4 Journaling, 예수님과 함께

일기(Diary)를 쓸 때 주어는 나(I)입니다. 하지만 저널링(Journaling)의 주어는 예수님(Jesus)입니다. 나의 일상을 반성하고 기록하는 일기도 좋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여정을 기록하는 저널링은 더 좋습니다.

5 마무리는 이렇게!

자신의 One Verse를 카톡이나 SNS를 통해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성경을 완독하고, 꾸준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Family Pleasant Hill

기존의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없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Family Pleasant Hill”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해야 합니다!

1 언제가 좋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매일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녁 시간 이후, 혹은 아침 식사 전도 좋습니다. 시간은 20-30분 이내가 좋습니다.

2 모임 장소 Tip!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이면서 어떤 미디어에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Family Pleasant Hill 전에는 절대 TV를 켜지 않도록 합니다.

3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 정하기

인도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을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아바>엄마>첫째>둘째, 혹은 집에서 키가 큰 순서를 따라, 노래를 잘하는 순서를 따라 등. 마무리 기도는 인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거나, 사회의 반대 순서, 혹은 모두가 돌아가며 마디기도를 해봅니다.

* 소그룹교재를 가정예배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페이지에 목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02

[illegible]10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사사기 Judges 1장 □	2 사사기 Judges 2장 □	3 사사기 Judges 3장 □	4 사사기 Judges 4장 □
8 사사기 Judges 7장 □	9 사사기 Judges 8장 □	10 사사기 Judges 9장 □	11 사사기 Judges 10장 □
15 사사기 Judges 13장 □	16 사사기 Judges 14장 □	17 사사기 Judges 15장 □	18 사사기 Judges 16장 □
22 사사기 Judges 20장 □	23 사사기 Judges 21장 □	24 룻기 Ruth 1장 □	25 룻기 Ruth 2장 □
		01 Jan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3 March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겸손

Humility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

Why _왜 읽어야 할까

주님과 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의 겸손을 구하라. 그분 안에 있는 깊은 겸손의 회복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What _어떤 보배인가

책 소개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랜 고민과 묵상이 만들어낸 고전으로 겸손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에게 겸손을 배우도록 한다. 아울러 겸손이 우리 삶과 신앙의 전체 영역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고 있다. 겸손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

평생을 남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앤드류 머레이. 그는 240여 편의 주옥같은 글들을 남겼는데,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생활과 기도 에 관한 것이다. 그가 쓴 저서의 특징은 신앙의 핵심을 찾아서 일목요연하게 해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모든 저서는 머레이 자신의 경건과 기도 생활 가운데 직접 깨닫고 체험한 것을 담고 있기에 더욱 놀라운 깊이가 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Chapter 4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나타난 겸손

형제자매 여러분들! 더 높은 삶으로 가는 길은 바로 낮추고 또 낮추는 것입니다. 높아 지기를 원하며 천국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높은 자리를 구하지도 요구하지도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항상 겸손하며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종의 자리 외에는 다른 자리를 탐하거나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우리의 목적이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비우며 낮추는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시며 그들을 높이 세우시고 축복하십니다.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의 전지전능한 능력과 우리를 향한 큰 사랑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축복하십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겸손과 온유함이 우리의 담대함, 고상함 그리고 남자다움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야말로 겸손임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의 왕대심과 하나님답게 하는 것이 모든 이의 종이 되며 섬기는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하며 그의 기쁨과 영광이 임재하도록 이끄는 단 하나의 길은 바로 겸손이라는 길입니다.

당신을 낮추시사 항상 겸손하셨던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가득 찰 때까지 지금까지 읽은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당신의 성품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을 믿읍시다. 그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므로 그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 안에 오셔서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사기 룻기

사사기

사사기는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 “쇼프팀”(재판관들이라는 뜻)의 번역입니다. 사사들은 평상시에는 백성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만 외적의 침략이 있을 때는 군사 및 정치 지도자로 활약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가 누구인지 성경에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탈무드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의 저자가 사무엘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사울의 즉위 시점까지 약 320여 년의 기간입니다. 사사기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이전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라는 표현으로 보아(삿 17:6, 18:1, 19:1, 21:25)왕정시대, 즉 사울왕 즉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사기는 절망의 책입니다. 하나님께는 특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한 민족으로 키워내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부터 형통의 복을 주시더니 시내 산에서는 율법이라는 거룩한 복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법대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이런 사태를 우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손에게 가르치라고 그토록 간곡하게 당부했지만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은 이방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하시며 이스라엘을 이방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셨습니다. 한동안 평화가 유지되지만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상에 빠져버렸습니다. 사사기에는 이러한 ‘배교 - 이방의 압제 - 부르짖음 - 구원 - 배교’라는 패턴(The Judge's Cycle)이 속절 없이 되풀이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

3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타락상과 열두 사사의 활동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려 애쓰시지만 이스라엘의 배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압제해도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사들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사사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서원을 합니다. 승리를 주시면 자기 집에서 가장 먼저 영접 나온 사람을 변제로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극히 혐오하는 범죄였습니다. 일찍이 이런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도 주신 바 있습니다(레 20:1-5). 전쟁에 승리했는데 가장 먼저 영접 나온 인물은 하필 입다의 외동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신실한 지도자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없던 마노아의 가정에 아들 삼손을 주면서 어려서부터 나실인으로 키우라 하셨습니다. 나실인은 특별한 서약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민 6:1-8). 나실인은 술을 마시지 않으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 등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거룩한 지도자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특단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에게서 신실함이나 리더십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엄청난 괴력을 받았지만 개인적 복수의 차원에서 블레셋을 죽였을 뿐이었습니다. 블레셋 여자를 좋아했고 성품은 매우 충동적이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매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두 가지 사건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는 그야말로 엮기적입니다. 미가의 집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당시 백성들이 율법을 전혀 알지 못했음을 말해줍니다.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을 차리더니 신상을 만들고 아들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다가 살길 찾아 헤매던 레위인을 보고는 그를 자기 신당의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는 이것을 나름 잘한 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행위는 모두 율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경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의식이 무너졌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건의 발단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 기브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한 레위인이 집으로 가는 여정 중 기브아에서 하루를 머물렀을 때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집주인에게 그를 내놓으라 협박합니다. 납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자기 대신 첩을 내줍니다. 그 첩은 밤새 폭행을 당하고 아침에 문밖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첩의 시신을 열두 토막으로 내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에게 범인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거절합니다. 그러자 흥분한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벌입니다. 광야에서 함께 고생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함께 피 흘린 동족인데, 어느새 지파 사이에 적대감이 형성되었고 이런 갈등을 조정할 최소한의 지도부조차 없었습니다. 동족 간의 전쟁은 치열해지고 결국 베냐민 지파가 거의 죽어 소멸될 위기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참으로 끔찍하고 참혹하기만 합니다.

사사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근래에 들어 더 자주 들려오는 목회자들의 타락상들, 교회 안에서의 다툼과 반목, 동성애를 필두로 한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의 도전 등에 직면한 우리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때마다 시대를 이끈 영적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영적 대각성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대부흥의 때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룻기

룻기 1장 1절에 의하면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사 시대는 이방의 침입이 잦았던 시기이지만 룻기는 이스라엘과 모압이 평화를 유지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룻기의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책에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탈무드 전승은 저자가 사무엘이라고 하지만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룻기 4장 17절과 22절에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사무엘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룻기는 배교와 부도덕이 만연하던 사사 시대에 쓰여진 신실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잃고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은 참담하기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가꾸고자 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엘리멜렉의 가정이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건너갔는데, 가문의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서 이방 며느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려 하는데, 모압 여인인 룻은 떠나지 않고 나오미에게 헌신할 것을 약속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신실한 보아스를 통해 룻을 축복하십니다. 보아스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또한 룻을 받아들여 아내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에게 복을 주시어 훗날 다윗과 그리스도가 이 혈통 가운데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사사기에서 보여준 엽기적인 삶과 이방 여인 룻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랑은 빛과 어둠만큼이나 대조적입니다.

구조

1장 | 언약심판과 귀향

- 1-5절: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모압이주 그리고 심판
- 6-22절: 나오미가 룻과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옴

2장 | 룻과 보아스의 만남

- 1-23절: 룻이 나오미를 헌신적으로 보살핌.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됨

3장 | 롯이 청혼

1-18절: 롯이 보아스에게 기업 무를 자(구속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함

4장 | 결혼과 족보

1-17절: 보아스가 기업 무르는 일을 추진하여 롯과 결혼

18-22절: 다윗의 족보

특징

‘고엘’ 제도 - 기업 무르는 자(룻 4:1-12)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친족을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구해주는 일을 말합니다. 기업 무를 자가 할 일은 남에게 팔린 친척의 땅을 되찾아 주는 일(레 25:25), 종으로 팔린 친척을 되찾아 오는 일(레 25:47), 죽은 친척에 대한 복수(신 19:12) 등입니다. 신명기 25장 5-10절에서는 형제가 자식 없이 죽은 경우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기 위함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대를 이어줄 책임이 형제에게 있다고 했는데 룻기에서는 형제가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에게로 그 책임이 넘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온 인류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보아스가 롯의 기업 무를 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는 중보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속하다’

룻기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1:6), 자식을 주시는 하나님(4:13)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속하다’는 말이 20여 차례나 쓰입니다. 곧 룻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심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백성 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Memo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01

2023 FEB
수요일 • Wed

누가 먼저

Who's First?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에는 눈에 보이는 뚜렷한 지도자가 없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들어갔지만 이제 그들은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사사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상태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어떻게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는지 기록합니다.

🎵 새546장(통399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목상본문

통독본문

사사기 1:1-10

사사기 1장

- 1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 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 3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 4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섹에서 만 명을 죽이고
- 5 또 베섹에서 아도니 베섹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 6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 7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칠십 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 8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 9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 10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새와 아히만과 달매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랴아르바였더라

Reading Insight

After the death of Joshua, there was a void in Israel's leadership. Even though the Israelites entered the land of Canaan, they didn't know what to expect in this new land. Judges 1 describes how the Lord remained faithful to Israel and renewed their relationship with the Lord.

🎵 Standing on the Promises

Meditation	Reading Plan
Judges 1:1-10	Judges 1

- 1** After the death of Joshua, the people of Israel inquired of the LORD, "Who shall go up first for us against the Canaanites, to fight against them?"
- 2** The LORD said, "Judah shall go up; behold, I have given the land into his hand."
- 3** And Judah said to Simeon his brother, "Come up with me into the territory allotted to me, that we may fight against the Canaanites. And I likewise will go with you into the territory allotted to you." So Simeon went with him.
- 4** Then Judah went up and the LORD gave the Canaanites and the Perizzites into their hand, and they defeated 10,000 of them at Bezek.
- 5** They found Adoni-bezek at Bezek and fought against him and defeated the Canaanites and the Perizzites.
- 6** Adoni-bezek fled, but they pursued him and caught him and cut off his thumbs and his big toes.
- 7** And Adoni-bezek said, "Seventy kings with their thumbs and their big toes cut off used to pick up scraps under my table. As I have done, so God has repaid me." And they brought him to Jerusalem, and he died there.
- 8** And the men of Judah fought against Jerusalem and captured it and struck it with the edge of the sword and set the city on fire.
- 9** And afterward the men of Judah went down to fight against the Canaanites who lived in the hill country, in the Negeb, and in the lowland.
- 10** And Judah went against the Canaanites who lived in Hebron (now the name of Hebron was formerly Kiriath-arba), and they defeated Sheshai and Ahiman and Talmai.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사람과 싸우라 하셨나요? (2절)
Which tribe did the Lord say should go and fight the Canaanites? (v. 2)

갈렙의 딸 악사는 누구와 결혼했나요? (13절)
To whom did Caleb give his daughter Aksah in marriage? (v. 1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 주활(CO)
덴버연합감리교회, 이선영(CO)
목회자를 위한 기도

리더가 보이지 않습니다

There Is No Leader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더가 보이지 않아 불안했을 것입니다. 리더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어느 지파가 앞장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누가 먼저 가서 싸워야 합니까?”라고 물어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 말이 참 입에서 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눈치 계속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튀지 않게 싸움이나 전쟁에서 나는 빼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사용해 주세요”라고 말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주인공도 사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둬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순간 우리는 실망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들을 위해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록된 성경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바랍니다. 사사가 역사서로 분류되지 않고 ‘전기 예언서’에 분류되는 것을 보아도 사사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을 꼭 보기 바랍니다. 사사 시대의 사건들을 통해 오늘을 비춰 보고 나아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리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When Joshua passed away, the people of Israel must have felt anxious because there was no clear leader for them. So, the Israelites asked the Lord, “Who of us is to go first to fight the Canaanites?” Can it be that we, too, are like the Israelites in our life, asking the Lord, “Who of us shall go first to fight?” Instead of saying, “Lord, I will go first,” we often look for a way out for ourselves, hoping that the Lord will call others to go first to serve and do the work.

We should know that the protagonist in the Bible is actually not any person in the Bible. Rather, the true protagonist in the Bible is God. This is also true in the Book of Judges. When a person becomes the protagonist, we will soon experience disappointment. The stories of people in the Bible are not recorded for the sake of those people but for us. We should learn to listen to what these stories are trying to tell us and teach us. We should note that the Book of Judges is not viewed as a historical book even though it records the story of God’s work through history but as a book belonging to the writings of the “Former Prophets.” This implies that the stories of judges contain important messages for us that we can use to reflect upon the present condition of our life and envision our future. Yes, we may not have a clear leader. But we need not worry because our God is the King of Kings and we can look to God for guidanc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연덕으로



02

2023 FEB
목요일·Thu

약속의 사람들

The People
of the Promis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2장에서는 여호와와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여호수아를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갑니다.

🎵 새545장(통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묵상본문

사사기 2:1-11

통독본문

사사기 2장

- 1 여호와와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 2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 3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 4 여호와와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 5 그러므로 그 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 6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 7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 8 여호와와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십 세에 죽으매
- 9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아스 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 10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 11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Reading Insight

In Chapter 2, we learn about a generation of people who came after the death of Joshua, son of Nun. These were the people who did not know the Lord. They strayed far from the Lord.

Down in the Valley Where the Mists of Doubt Arise

Meditation

Reading Plan

Judges 2:1~11

Judges 2

1 Now the angel of the LORD went up from Gilgal to Bochim. And he said, “I brought you up from Egypt and brought you into the land that I swore to give to your fathers. I said, ‘I will never break my covenant with you,

2 and you shall make no covenant with the inhabitants of this land; you shall break down their altars.’ But you have not obeyed my voice. What is this you have done?

3 So now I say, I will not drive them out before you, but they shall become thorns in your sides, and their gods shall be a snare to you.”

4 As soon as the angel of the LORD spoke these words to all the people of Israel, the people lifted up their voices and wept.

5 And they called the name of that place Bochim. And they sacrificed there to the LORD.

6 When Joshua dismissed the people, the people of Israel went each to his inheritance to take possession of the land.

7 And the people served the LORD all the days of Joshua, and all the days of the elders who outlived Joshua, who had seen all the great work that the LORD had done for Israel.

8 And Joshua the son of Nun, the servant of the LORD, died at the age of 110 years.

9 And they buried him within the boundaries of his inheritance in Timnath-heres,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north of the mountain of Gaash.

10 And all that generation also were gathered to their fathers. And there arose another generation after them who did not know the LORD or the work that he had done for Israel.

11 And the people of Israel did what wa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served the Baal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 땅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 두셨을까요? (2-3절)

Why didn't the Lord drive out the people of the land for the Israelites? (vv. 2-3)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행한 일은 무엇인가요? (11절)

What did the generation who didn't know the Lord do? (v. 11)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 전병욱(CO)
푸에블로한인교회, 최운선(CO)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옆구리에 가시

A Thorn in the Side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기존 전쟁 기준과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신명기 20장 10-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전쟁 규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항복할 것을 권유하고 항복하면 성문을 열어준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여자와 아이들, 가축들, 성읍 안에 모든 것을 탈취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부르는 ‘진멸시키는’ 전쟁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기억하라! 도대체 너희의 관심사가 무엇이나? 나 여호와 하나님이냐? 가나안 땅이나?”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우리들의 관심이 엉뚱한 곳을 향할 때마다 옆구리를 콕콕 찌르십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자 오늘도 내가 바라보는 곳을 함께 보자고 말씀하십니다. 점점 무감각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점점 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 가시길 바랍니다.

As the Israelites engage in war to conquer Canaan, the Lord gives them a command that is different from what is normally expected in other types of war. These rules of engagement in a typical war can be found in Deuteronomy 20:10-14. In it, they are told to make an offer of peace to the people of the city about to be conquered. If the people of the city accept the offer, then they will be put to forced labor. If they refuse the offer, then all men in the city will be killed while the women, the children, the livestock and everything else in the city are taken as plunder.

But in their war with nations in Canaan, they are commanded to carry out warfare that is referred to as “herem” in Hebrew, which has “total annihilation” as its goal. Nothing should be left but everything must be destroyed or killed. This is certainly not an easy command to follow. Why did the Lord give such a brutal command? Perhaps the Lord wanted to tell the Israelites, “Remember that the Lord is sovereign even over this land! What is the focus of your interest? Is it me the Lord Yahweh or the land of Canaan?”

Even today, when we stray from the Lord and place the focus of life on something other than Him, the Lord pokes at our side, encouraging us to walk with Him and to embrace the vision of life that the Lord has for us. I pray that you will remain faithful and not stray from the Lord as you respond to His Word with faithfulness and seek to live your life in ways that will please the Lor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연대로



03

2023 FEB
금요일 • Fri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That Which
Pleases the Lor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웃니엘이 등장합니다. 웃니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입니다. 웃니엘이 죽고 에훗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눈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 새93장(통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에요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사기 3:1-11

사사기 3장

- 1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 2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 두신 이방 민족들은
- 3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 4 남겨 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 5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 6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 7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 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팔 년 동안 섬겼더니
- 9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웃니엘이라
- 10 여호와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웃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 11 그 땅이 평온한 지 사십 년에 그나스의 아들 웃니엘이 죽었더라

Reading Insight

The first judge of Israel, Othniel, is introduced. The name Othniel means, "God is my strength." After Othniel's passing, Ehud is introduced. Because they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the Israelites became subject to Eglon, King of Moab.

🎵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Meditation

Reading Plan

Judges 3:1-11

Judges 3

1 Now these are the nations that the LORD left, to test Israel by them, that is, all in Israel who had not experienced all the wars in Canaan.

2 It was only in order that the generations of the people of Israel might know war, to teach war to those who had not known it before.

3 These are the nations: the five lords of the Philistines and all the Canaanites and the Sidonians and the Hivites who lived on Mount Lebanon, from Mount Baal-hermon as far as Lebo-hamath.

4 They were for the testing of Israel, to know whether Israel would obey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which he commanded their fathers by the hand of Moses.

5 So the people of Israel lived among the Canaanites, the Hittites, the Amorites, the Perizzites, the Hivites, and the Jebusites.

6 And their daughters they took to themselves for wives, and their own daughters they gave to their sons, and they served their gods.

7 And the people of Israel did what wa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They forgot the LORD their God and served the Baals and the Asheroth.

8 Therefore the anger of the LORD was kindled against Israel, and he sold them into the hand of Cushan-rishathaim king of Mesopotamia. And the people of Israel served Cushan-rishathaim eight years.

9 But when the people of Israel cried out to the LORD, the LORD raised up a deliverer for the people of Israel, who saved them, Othniel the son of Kenaz, Caleb's younger brother.

10 The Spirit of the LORD was upon him, and he judged Israel. He went out to war, and the LORD gave Cushan-rishathaim king of Mesopotamia into his hand. And his hand prevailed over Cushan-rishathaim.

11 So the land had rest forty years. Then Othniel the son of Kenaz die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잊어버린 것은 무엇인가요? (7절)

What did the Israelites forget? (v. 7)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우신 한 구원자는 누구인가요? (9절)

Who did the Lord raise to be a deliverer for the Israelites when they cried out to the Lord? (v. 9)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의 힘 주께 있네 My Strength is in the Lord

웃니엘은 사사들 중에 우리가 흔히 들어본 인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의 의미가 얼마나 귀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힘이라고 하면 돈이 떠오르거나 권력을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과 나의 자리에만 집중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힘에 모든 관심을 쏟다 보니 정작 나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움 받은 사람이 웃니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수 있었고 하나님도 우시니 전쟁에 나가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들의 삶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힘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을 가만히 보시지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웃니엘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설 수 있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힘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을 돌보는 것도 오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교회를 섬기고 기둥이 되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헌신하는 것도 다 나의 힘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셔서 나의 삶에 주어진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선포하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Othniel may not be one of the judges whom we are familiar with. But his name certainly means something that all of us can truly appreciate, “God is my strength.” In our world today, the idea of strength is often associated with having a lot of wealth or power. This shows that we are often focused on what we have and our positions in society. Sometimes, we are so focused on our own strength, we often forget the true source of our strength. In our scripture, the Lord raises Othniel, a man whose name means “God is my strength,” when the Israelites cry out to the Lord.

When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Othniel, he was able to create an army of Israelite fighters and, with God’s help, claim victory in the war. Similarly, even though the strength of God in life may not seem so obvious or visible to our eyes, God’s strength always makes all the difference in our lives. Our God gives us strength to endure and power to do even impossible things. God doesn’t just observe our failures or disappointments as a bystander but rather raises us up and gives us strength as God raised up Othniel.

In your life and ministry, may you continue to look to God and pray to God, “Lord, I am able to stand and not fall because you are with me and give me strength. I am able to look after my family because you are with me and give me strength. Because you give me strength, I am able to serve my church faithfully and with dedication. Be my strength always and help me to live my life with joy and accomplish great things for your glory!”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한미연합감리교회, 이자성(CO)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 최영(CT)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연덕으로



04

2023 FEB
토요일 • Sat

꿀벌이라는 이름

The Name
of Honey Be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가나안 지역을 다스리던 하솔 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보유할 정도로 강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인 드보라를 이스라엘 의사결정 최종 책임자로 선택하십니다. 드보라는 전쟁의 한 가운데로 뛰어듭니다.

🎵 새80장(통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목성본문

통독본문

사사기 4:1-10

사사기 4장

1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매

2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교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3야빈 왕은 철 병거 구백 대가 있어 이십 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4그 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5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벵엘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6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7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8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9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10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Reading Insight

Jabin, King of Hazor and ruler of Canaan, was a powerful ruler with 900 iron chariots. Deborah, the judge, is chosen by God as the final decision-maker for Israel. Deborah is thrown into the thick of the conflict.

🎵 There Is No Name So Sweet

Meditation

Reading Plan

Judges 4:1-10

Judges 4

1 And the people of Israel again did what wa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after Ehud died.

2 And the LORD sold them into the hand of Jabin king of Canaan, who reigned in Hazor. The commander of his army was Sisera, who lived in Harosheth-hagoyim.

3 Then the people of Israel cried out to the LORD for help, for he had chariots of iron and he oppressed the people of Israel cruelly for twenty years.

4 Now Deborah, a prophetess, the wife of Lappidoth, was judging Israel at that time.

5 She used to sit under the palm of Deborah between Ramah and Bethel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and the people of Israel came up to her for judgment.

6 She sent and summoned Barak the son of Abinoam from Kedesh-naphtali and said to him, “Has not the LORD, the God of Israel, commanded you, ‘Go, gather your men at Mount Tabor, taking 10,000 from the people of Naphtali and the people of Zebulun.

7 And I will draw out Sisera, the general of Jabin’s army, to meet you by the river Kishon with his chariots and his troops, and I will give him into your hand’?”

8 Barak said to her, “If you will go with me, I will go, but if you will not go with me, I will not go.”

9 And she said, “I will surely go with you. Nevertheless, the road on which you are going will not lead to your glory, for the LORD will sell Sisera into the hand of a woman.” Then Deborah arose and went with Barak to Kedesh.

10 And Barak called out Zebulun and Naphtali to Kedesh. And 10,000 men went up at his heels, and Deborah went up with him.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드보라 남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4절)

What is the name of Deborah’s husband? (v. 4)

왜 바락은 드보라에게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8절)

Why did Barak say he wouldn’t go unless Deborah was with him? (v. 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새생명교회, 최동현(CT)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 김정환(CT)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

꿀벌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여성은 중요한 결정은 커녕 재산을 측정할 때, 사람의 수를 셀 때에도 제외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보라를 주목하는 이유는 단 순히 그녀가 여성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정작 난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또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만큼 안타깝고 낭비되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꿀벌’이란 이름의 선지자 드보라는 ‘번개’란 의미의 이름을 가진 바락, ‘횃불’이란 의미의 이름을 가진 남편 랍비돗 보다도 더 용감했고 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어떤 전쟁과 같은 현실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문화와 시대적 상황이 나를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도 사용하십니다.

Deborah, whose name means “bee,” makes an appearance. Women were not included in the census or make important decisions in Israelite culture at the time. Deborah is highlighted in today’s text for more than just her gender.

I want to become someone who is worthy of my name in the eyes of God, who knows my name. There is not a more sad and wasted life than not knowing who I am, what I live for, or where I am going, despite the fact that God has called me. Deborah, whose name meant “bee,” was a God-fearing woman who was braver and more powerful than Barak, whose name meant “lightning,” and than her husband, Lappidoth, whose name meant “torch.”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Please continue to pray to the Lord. Let us pray so that we can boldly and proudly stand before God who calls on our name. Please ask for the faith to triumph in any reality, such as war. God recognizes your name and he will lead you to eternal life, the path of victory. Today, God uses people of faith who do not abandon the Word of God and live according to the Word rather than the standards of culture and time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연대로



05

주일 말씀 요약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Sunday Sermon Not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김영봉 목사 (와싱턴사립교회, VA)

벌써 30년도 지난 일입니다. 당시 교회 상황이 저에게 참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잇을 만하면 대형 교회에서 추문이 터져 나오고, 기독교인으로 유명한 정치인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뉴스에 오르고, 교계는 목회자들의 교권 싸움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계속 가도록 붙들어 준 몇 분의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붙들어 준 것이 아니라, 제가 그분들을 붙들고 버텼다고 해야 맞습니다.

그때 그분들 중 한 분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의 교회 상황에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자주 저를 괴롭힙니다. 지금껏 버티고 있는 것은 목사님 때문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살아계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분은 그 이후로도 줄곧 같은 걸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분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저에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교회가 희망으로 보인 시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소수의 남은 자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소수의 남은 자로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답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상황에 대해 불평하기를 멈추고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에 마음을 쏟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의 저의 영적 생활은 나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의 주인공 서유진의 생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감추어진 사학 비리를 캐내기 위해 싸웁니다. 그 싸움으로 인해 힘겨워 하는 것을 보고 어느 형사가 묻습니다. “그런 순진한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그 고생을 하니까?” 그러자 서유진이 답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마음 이미 다 접었어요. 난 그들이 나를 바꾸지 못하게 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저를 지키기 위해 힘써 왔는데, 요즈음에는 저도, 제가 그 목사님에게 보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의 메일을 후배 목회자들에게서 받곤 합니다. 그런 메일을 받을 때면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다른 누구의 희망의 근거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감히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영원하고 참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메일을 받을 때면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더욱 깨어 있기를 힘씁니다.

오늘의 교계의 상황은 30년 전보다 더 희망을 보기 어렵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교회의 민낯이 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이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려는 유혹에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남은 자들 중에 발견되기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희망이 있다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때문이고, 남은 자 중 하나로 남아 있기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06

2023 FEB
월요일 • Mon

승리의 이야기

The Story
of Victory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 새516장(통265장) 옴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목성본문

통독본문

사사기 5:1-12

사사기 5장

- 1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 2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 3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 4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 5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 6 아낏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 7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 8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 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사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 9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 10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 11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깊은 곳에서 여호와와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 때에 여호와와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 12 깽깽지어다 깽깽지어다 드보라여 깽깽지어다 깽깽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암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Reading Insight

Judges Deborah and Barak praised the LORD and sang for the LORD who led Israel to victory.

Standing on the Promises

Meditation	Reading Plan
Judges 5:1-12	Judges 5

- 1 Then sang Deborah and Barak the son of Abinoam on that day:
- 2 “That the leaders took the lead in Israel, that the people offered themselves willingly, bless the LORD!
- 3 “Hear, O kings; give ear, O princes; to the LORD I will sing; I will make melody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 4 “LORD, when you went out from Seir, when you marched from the region of Edom, the earth trembled and the heavens dropped, yes, the clouds dropped water.
- 5 The mountains quaked before the LORD, even Sinai before the LORD, the God of Israel.
- 6 “In the days of Shamgar, son of Anath, in the days of Jael, the highways were abandoned, and travelers kept to the byways.
- 7 The villagers ceased in Israel; they ceased to be until I arose; I, Deborah, arose as a mother in Israel.
- 8 When new gods were chosen, then war was in the gates. Was shield or spear to be seen among forty thousand in Israel?
- 9 My heart goes out to the commanders of Israel who offered themselves willingly among the people. Bless the LORD.
- 10 “Tell of it, you who ride on white donkeys, you who sit on rich carpets and you who walk by the way.
- 11 To the sound of musicians at the watering places, there they repeat the righteous triumphs of the LORD, the righteous triumphs of his villagers in Israel.” Then down to the gates marched the people of the LORD.
- 12 “Awake, awake, Deborah! Awake, awake, break out in a song! Arise, Barak, lead away your captives, O son of Abinoam.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누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나요?
(1절)

Who is singing the victory song? (v. 1)

누구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나요?
(11절)

Whose victory are they singing about? (v. 11)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하트포드한인교회, 최운돈(CT)
멜라웨어한인감리교회, 송종남(DE)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기운을 내세요

Cheer up!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세도나에는 수많은 명상가들이 모입니다. 기운이 세다고 말합니다. 여행 중에 벨 락(Bell Rock)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하이킹을 하던 범상치 않게 생긴 할아버지가 여행객들에게 이 땅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도나에 4개의 볼텍스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강한 에너지가 나오는 곳이 벨 락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기운이 사람의 영혼에 영적 에너지를 준다는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듣다가 “아니 그럼 그 에너지를 받으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건가?”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보라는 노래합니다. 그것도 영적 에너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승리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 전에는 갈급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얻고자 한 것을 얻은 후에도 중요한 과정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시고 이끄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 5절을 보면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승리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주신 분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여정의 긴 과정 중에서 이러한 승리의 기쁨과 승리의 노래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에게 기운을 주시는 분은 바로 벨 락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Many meditators converge to Sedona in Arizona because of the strong radiating energy. As I was taking pictures in front of Bell Rock during my trip, I overheard one older hiker who looked quite unusual offering an explanation of the land around us to the visitors. The older hiker said there were four vortexes in Sedona and Bell Rock was the place where the strongest energy permeated. Simply his explanation was, “The energy of the land provided spiritual energy to people.” While I was listening, a strange thought occurred to me, “If we want to receive the energy, must all people converge to this one place?”

Deborah sang. It was not just spiritual energy, but she was singing about the story of victory that God had given to Deborah and the people of Israel. Ordinary people thirst for what they want before they get it. People long for something and pray. But we must remember that there is an important process we must follow after we achieve what we long for. It is to remember and acknowledge God's hand that led us, helped us and made it happen.

Deborah and Barak did not forget and praised the LORD. Verses 4 and 5 talk about the Exodus from Egypt. We can tell that Deborah remembered that God led them and the master of the history of Israel was God. She remembered the God of their victory. She remembered their God who gave them the victory. During our long faith journey we hope that the joy of victory and the song of victory will continue without ceasing. Because the one who gives me energy is not Bell Rock but God. There are plenty of reasons to praise the LORD and sing.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연덕으로



07

2023 FEB
화요일 • Tue하나님의
평화

The Peace of Go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아
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
와의 사자를 만난 기드온은 미디안과 아멜렉에게 승리할 증거를 하
나님께 요구합니다.

♪ 새412장(통469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사기 6:11-24

사사기 6장

11 여호와와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
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
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12 여호와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
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13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
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
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
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14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
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5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
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16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17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
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18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 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
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19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
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20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
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21 여호와와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와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22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와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와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2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
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4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
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
에 있더라

Reading Insight

As the Midians bothered the Israelites and began stealing their possessions, the Israelites woke up and cried out to God. When Gideon encountered the angel of the LORD, he asked God to show him the signs they would defeat the Midianites and Amalekites.

🎵 For Away in the Depths of My Spirit

Meditation

Reading Plan

Judges 6:11-24

Judges 6

11 Now the angel of the LORD came and sat under the terebinth at Ophrah, which belonged to Joash the Abiezrite, while his son Gideon was beating out wheat in the winepress to hide it from the Midianites.

12 And the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and said to him, “The LORD is with you, O mighty man of valor.”

13 And Gideon said to him, “Please, sir, if the LORD is with us, why then has all this happened to us? And where are all his wonderful deeds that our fathers recounted to us, saying, ‘Did not the LORD bring us up from Egypt?’ But now the LORD has forsaken us and given us into the hand of Midian.”

14 And the LORD turned to him and said, “Go in this might of yours and save Israel from the hand of Midian; do not I send you?”

15 And he said to him, “Please, Lord, how can I save Israel? Behold, my clan is the weakest in Manasseh, and I am the least in my father’s house.”

16 And the LORD said to him, “But I will be with you, and you shall strike the Midianites as one man.”

17 And he said to him, “If now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then show me a sign that it is you who speak with me.

18 Please do not depart from here until I come to you and bring out my present and set it before you.” And he said, “I will stay till you return.”

19 So Gideon went into his house and prepared a young goat and unleavened cakes from an ephah of flour. The meat he put in a basket, and the broth he put in a pot, and brought them to him under the terebinth and presented them.

20 And the angel of God said to him, “Take the meat and the unleavened cakes, and put them on this rock, and pour the broth over them.” And he did so.

21 Then the angel of the LORD reached out the tip of the staff that was in his hand and touched the meat and the unleavened cakes. And fire sprang up from the rock and consumed the meat and the unleavened cakes. And the angel of the LORD vanished from his sight.

22 Then Gideon perceived that he was the angel of the LORD. And Gideon said, “Alas, O Lord GOD! For now I have seen the angel of the LORD face to face.”

23 But the LORD said to him, “Peace be to you. Do not fear; you shall not die.”

24 Then Gideon built an altar there to the LORD and called it, The LORD Is Peace. To this day it still stands at Ophrah, which belongs to the Abiezrite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빼앗아 갔나요? (4절)

What did the Midianites take from the Israelites? (v. 4)

대항할 힘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7절)

What actions did the Israelites take who had no strength to resist? (v. 7)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호와 샌롬 Jehovah Shalom

11절에 “여호와와 천사” 혹은 “여호와와 사자”라고 번역한 표현의 히브리어는 “말라크 아도나이”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부르고 찾는 하나님 그분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선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을 본 자가 살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기드온도 아마 여호와 천사를 대면하였다고 두려워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평화로운 거리의 모습을 보면 믿겨지지 않지만, 종종 들려오는 뉴스를 들을 때면 ‘어떻게 서로를 죽일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서 여전히 살인과 강도 특히 무차별 총기난사가 일어날 때마다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죽이는 세상에 살도록 하는데 마음 편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드온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샌롬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죽음이 아닌 평화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루가 ‘여호와 샌롬’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죽음의 권세와 세력도 하나님의 평화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깰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화가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에 임하길 기도합니다. 여호와 샌롬의 제단이 오늘까지 불린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까지 이어진다고 들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평화의 메신저로,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Found in verse 11, “the angel of the LORD” or “the messenger of the LORD” in Hebrews is “Malak Adonai.” God’s messenger delivers the Word of God. I pray that the peace of God comes to this world, the God whom we so eagerly call and seek. Because there is no greater blessing than the peace of God coming to the land where I stand. Because Exodus 33 mentioned that whoever sees God cannot live, Gideon was afraid when he saw the angel of the LORD face to face. Thus, God told Gideon, “Peace! Do not be afraid. You are not going to die.”

I have questions whenever I watch people passing me in New York City. When I heard news of mass killings, my question was, “how could they kill each other?” because it is difficult to believe during peaceful times. Even in this country called the “Land of the Free and Home of the Brave,” whenever we hear of murders, robbery, and random and senseless mass killings, we despair. What parents feel comfortable when all kinds of killings are going on in the world where their children live? Gideon survived and built an altar for God and called it “The LORD is Shalom.” The promise of God was not death but peace.

I hope today becomes “Shalom of the LORD.” The power of death cannot resist the Shalom of the LORD and cannot break the promise of God. I pray that the true shalom given to us shall permeate throughout our families and our workplaces. The message that the altar, the shalom of the LORD is called, is heard as the peace of the LORD is continued even today. Today and tomorrow, we want to live as messengers of God’s peace and as worshippers.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철구(FL)
올랜도한인연합감리교회, 김호진(FL)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연대로



08

2023 FEB
수요일 • Wed기드온의
300명 용사300 Warriors
of Gideo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군사들을 3만 2천명을 모으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300명의 군사만을 남깁니다. 기드온의 군사들은 칼이 아닌 나팔과 향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가 승리합니다.

♪ 새358장(통400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목상본문

통독본문

사시기 7:1-15

사시기 7장

1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 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2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이만 이천 명이었나니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4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 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5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6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삼백 명이었나니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7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8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삼백 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9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10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11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12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을 같으니라

13 기드온이 그 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14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15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Reading Insight

Gideon assembled 32,000 warriors to fight the Midianites but retained only 300 as instructed by God. The warriors of Gideon carried trumpets, jars and torches instead of swords and won the battle.

There's a Royal Banner

Meditation

Reading Plan

Judges 7:1-15

Judges 7

¹ Then Jerubbaal (that is, Gideon) and all the people who were with him rose early and encamped beside the spring of Harod. And the camp of Midian was north of them, by the hill of Moreh, in the valley.

² The LORD said to Gideon, "The people with you are too many for me to give the Midianites into their hand, lest Israel boast over me, saying, 'My own hand has saved me.'"

³ Now therefore proclaim in the ears of the people, saying, 'Whoever is fearful and trembling, let him return home and hurry away from Mount Gilead.'" Then 22,000 of the people returned, and 10,000 remained.

⁴ And the LORD said to Gideon, "The people are still too many. Take them down to the water, and I will test them for you there, and anyone of whom I say to you, 'This one shall go with you,' shall go with you, and anyone of whom I say to you, 'This one shall not go with you,' shall not go."

⁵ So he brought the people down to the water. And the LORD said to Gideon, "Every one who laps the water with his tongue, as a dog laps, you shall set by himself. Likewise, every one who kneels down to drink."

⁶ And the number of those who lapped, putting their hands to their mouths, was 300 men, but all the rest of the people knelt down to drink water.

⁷ And the LORD said to Gideon, "With the 300 men who lapped I will save you and give the Midianites into your hand, and let all the others go every man to his home."

⁸ So the people took provisions in their hands, and their trumpets. And he sent all the rest of Israel every man to his tent, but retained the 300 men. And the camp of Midian was below him in the valley.

⁹ That same night the LORD said to him, "Arise, go down against the camp, for I have given it into your hand."

¹⁰ But if you are afraid to go down, go down to the camp with Purah your servant.

¹¹ And you shall hear what they say, and afterward your hands shall be strengthened to go down against the camp." Then he went down with Purah his servant to the outposts of the armed men who were in the camp.

¹² And the Midianites and the Amalekites and all the people of the East lay along the valley like locusts in abundance, and their camels were without number, as the sand that is on the seashore in abundance.

¹³ When Gideon came, behold, a man was telling a dream to his comrade. And he said, "Behold, I dreamed a dream, and behold, a cake of barley bread tumbled into the camp of Midian and came to the tent and struck it so that it fell and turned it upside down, so that the tent lay flat."

¹⁴ And his comrade answered, "This is no other than the sword of Gideon the son of Joash, a man of Israel; God has given into his hand Midian and all the camp."

¹⁵ As soon as Gideon heard the telling of the dream and its interpretation, he worshiped. And he returned to the camp of Israel and said, "Arise, for the LORD has given the host of Midian into your han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3만 2천 명으로도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상대하기는 턱없이 부족한데 군사 수를 줄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

Even 32,000 warriors were not enough to face 135,000 Midian soldiers then why was the number of warriors reduced? (v. 2)

300명의 용사는 어떻게 구별하였나요? (5-7절)

How did they select the 300 warriors? (vv. 5-7)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 김종권(FL)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 한명훈(FL)
목회자를 위한 기도

놓지 말아야 할 것

Those We Must Not Let Go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구별하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가 더 많으면 좋다 혹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나마 모인 이스라엘 군사들의 수를 계속 줄이라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3분의 1로 줄이시더니 최종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숫자 300명을 남기신 것입니다.

더운 날 시원한 물을 만나면 보통의 반응은 얼른 달려가 물을 벌컥벌컥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로 적시고 심지어 목욕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물을 움켜서 활아먹은 300명으로 전쟁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많은 대군으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전쟁 중이라면 무기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번 물을 마실 때마다 힘들게 물을 움켜서 활아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 꼭 필요한 자격을 점검하며 보고 계신 것입니다. 군대에서 지옥 주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소대장들이 막사에 몰래 들어와 소총을 가져갑니다. 그다음 날 총을 잃어버린 훈련대원 때문에 모두가 얼차려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군인에게 총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니 잘 때도 품에 넣고 자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총기 보관대가 없는 야산에서는 각자가 자기 무기를 관리해야 하는 전쟁에 대비한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며 찬양하는 우리는 우리 가슴에 예수님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We see the scene of how 300 warriors of Gideon were selected. Ordinarily we feel better or stronger the higher or larger the number is. But God commanded Gideon to keep reducing the number of warriors assembled. First, God commanded to reduce the number to 1/3 and finally only 300 remained which was a ridiculously low number.

When we see cold water during hot days, our usual reaction is to run to the water and start gulping down the cold water. Maybe even wet our hair and take a bath? But God wanted to engage in the battle with those 300 who lapped the water with their hands. In the history of God, it is not easy to find a scene where a war was won with a large army.

There are things that we must not let go. If we were in the middle of a war, we must not let go of our weapons. God is not telling us to drink water by lapping with hands every time and any time but God was watching to select the most qualified that fit the situation. I was in army training camp during hell training week. While all the trainees were asleep all the platoon leaders sneaked into the army barracks and took the rifles. The next day, I remember all the trainees who lost their rifles were subject to harsh punishment. Rifles are as important as life for soldiers, so the lesson was the safekeeping of the rifles on trainees' chest even while asleep. Because the training was in the middle of a forested mountain where there was no special storage place for rifles, each trainee was responsible for his own rifle in preparation for real war. As we sing the hymn “I would rather have Jesus” we must not let go of Jesus in our heart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연덕으로



09

2023 FEB
목요일·Thu승리 후
따르는 탐욕Greed That
Follows Victory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냐고 자신들은 제외했느냐며 화를 냅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이 다스려 달라는 요청을 거절합니다. 에브라임과 갓 지파를 비롯한 지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 새267장(통201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시기 8:22-35

사시기 8장

22 그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23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24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25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겹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26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천칠백 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러댄 사슬이 있었더라

27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프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28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사십 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29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30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칠십 명이었고

31 세겔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32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으매 아비에셀 사람의 오프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33 기드온이 이미 죽으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34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35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Reading Insight

The Ephraimites questioned Gideon why they were not called to fight and were angry. The people asked Gideon to rule over them but Gideon refused. There was a dispute between the Ephraimites and the tribe of Gad and other tribes.

🎵 Tis the Promise of God

Meditation

Reading Plan

Judges 8:22-35

Judges 8

22 Then the men of Israel said to Gideon, “Rule over us, you and your son and your grandson also, for you have saved us from the hand of Midian.”

23 Gideon said to them, “I will not rule over you, and my son will not rule over you; the LORD will rule over you.”

24 And Gideon said to them, “Let me make a request of you: every one of you give me the earrings from his spoil.” (For they had golden earrings, because they were Ishmaelites.)

25 And they answered, “We will willingly give them.” And they spread a cloak, and every man threw in it the earrings of his spoil.

26 And the weight of the golden earrings that he requested was 1,700 shekels of gold, besides the crescent ornaments and the pendants and the purple garments worn by the kings of Midian, and besides the collars that were around the necks of their camels.

27 And Gideon made an ephod of it and put it in his city, in Ophrah. And all Israel whored after it there, and it became a snare to Gideon and to his family.

28 So Midian was subdued before the people of Israel, and they raised their heads no more. And the land had rest forty years in the days of Gideon.

29 Jerubbaal the son of Joash went and lived in his own house.

30 Now Gideon had seventy sons, his own offspring, for he had many wives.

31 And his concubine who was in Shechem also bore him a son, and he called his name Abimelech.

32 And Gideon the son of Joash died in a good old age and was buried in the tomb of Joash his father, at Ophrah of the Abiezrites.

33 As soon as Gideon died, the people of Israel turned again and whored after the Baals and made Baal-berith their god.

34 And the people of Israel did not remember the LORD their God, who had delivered them from the hand of all their enemies on every side,

35 and they did not show steadfast love to the family of Jerubbaal (that is, Gideon) in return for all the good that he had done to Israel.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통치자가 될 것은 거절하고 대신
기드온이 요청한 것은 무엇인가요?
(24절)

After refusing to rule over the
Israelites, what did Gideon ask
for? (v. 24)

기드온이 그 집안에 덮이 될 것을
만드는데 무엇인가요? (27절)

Gideon made something that
would become a snare for his
family, what was it? (v. 27)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포트피어스한인선교감리교회, 김선용(FL)
헤르난도한인교회, 윤대섭(FL)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지파들의 다툼

Bickering among the Tribes

이역상 목사님은 “내가 왕이었습니다”라는 책에서 “이제부터 사사시대 내려막 길입니다. 시대와 사사를 거듭할수록 이스라엘의 탐욕과 사사들의 부패는 점점 커져만 갑니다”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금귀걸이 20킬로그램을 요청한 것은 뭔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는데 기드온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기드온의 죽음도 웬지 모를 초라함으로 잊혀지는 것을 봅니다. 기드온이 잊혀지는 것은 그렇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깨끗이 잊어버린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땅의 다툼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집안에서도 형제들이 싸우는 이유는 딱히 돈 문제 말고는 없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소식도 좋지만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들의 삶도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툼이 용서와 화해로, 미움이 사랑으로 채워지는 우리들의 삶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승리를 원하지만 승리 후 삶을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승리의 목적과 승리의 이유를 먼저 찾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은 결과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기드온처럼 탐욕으로 물들어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승리 후 탐욕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 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In the book I Was the King by Rev. IkSang Lee, he writes, “It is downhill for the judges from now on. As time passed and as more judges appeared, the greed of Israel and the corruption of the Judges increased.” Even though Gideon said, “Only God will rule over you,” he requested 20kg of earrings. Here I wonder what went through Gideon’s mind because this request does not match the image of Gideon. Even the death of Gideon looked like he was disappearing into oblivion and triviality. The oblivion of Gideon was one matter, but it is a shock that the people of Israel had completely forgotten God.

The scenes of this world full of unending conflicts are not much different. We see many cases of family bickering between siblings solely based on money matters. God may appreciate the news of victory but we must remember that God appreciates the news that we love each other even more. “Love each other” is not just a catch phrase to be pleasing to our ears but rather we must remember that when we truly love each other, our lives will experience the abundant love of God. I hope that our bickering will turn into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and our hatred will be replaced with love so that our lives will be transformed.

We usually want victory, but we do not prepare our lives for after the victory. I hope that we seek the purpose and reason for wanting victory before we march on the path of victory. We need to remind ourselves that the results we were unprepared for, no matter how good they may be, can fade away from our memories when corrupted by greed like Gideon. What we need to fear is not defeat but being ignored by the sight of God. Life after victory should not be filled with greed but we need to continue to live unchanged fearing God even after victor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연대로



10

2023 FEB
금요일 • Fri

산에 올라 외치는 요담

Jotham Shouting
at the Top
of Mountai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여룹바알(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세겜의 지도자들을 향해 산 꼭대기에 올라 외칩니다. 폭력이 난무한 시대가 됩니다. 악한 세겜이 멸망하고 아비멜렉도 전쟁 중에 죽습니다.

♪ 새383장(통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목상본문

통독본문

사사기 9:7-20

사사기 9장

7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 아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8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9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10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11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12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13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14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15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16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17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18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칠십 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19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20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니라 하고

Reading Insight

Abimelech became king after having killed 70 brothers. The youngest son of Jerub-Baal (Gideon), Jotham went up to the top of the mountain and shouted to the leaders of Shechem. Violence became rampant during this period. Evil Shechem was ruined and Abimelech died during the war.

🎵 To the Hills I Lift Mine Eyes

Meditation

Reading Plan

Judges 9:7-20

Judges 9

7 When it was told to Jotham, he went and stood on top of Mount Gerizim and cried aloud and said to them, “Listen to me, you leaders of Shechem, that God may listen to you.

8 The trees once went out to anoint a king over them, and they said to the olive tree, ‘Reign over us.’

9 But the olive tree said to them, ‘Shall I leave my abundance, by which gods and men are honored, and go hold sway over the trees?’

10 And the trees said to the fig tree, ‘You come and reign over us.’

11 But the fig tree said to them, ‘Shall I leave my sweetness and my good fruit and go hold sway over the trees?’

12 And the trees said to the vine, ‘You come and reign over us.’

13 But the vine said to them, ‘Shall I leave my wine that cheers God and men and go hold sway over the trees?’

14 Then all the trees said to the bramble, ‘You come and reign over us.’

15 And the bramble said to the trees, ‘If in good faith you are anointing me king over you, then come and take refuge in my shade, but if not, let fire come out of the bramble and devour the cedars of Lebanon.’

16 “Now therefore, if you acted in good faith and integrity when you made Abimelech king, and if you have dealt well with Jerub-baal and his house and have done to him as his deeds deserved--

17 for my father fought for you and risked his life and delivered you from the hand of Midian,

18 and you have risen up against my father’s house this day and have killed his sons, seventy men on one stone, and have made Abimelech, the son of his female servant, king over the leaders of Shechem, because he is your relative--

19 if you then have acted in good faith and integrity with Jerub-baal and with his house this day, then rejoice in Abimelech, and let him also rejoice in you.

20 But if not, let fire come out from Abimelech and devour the leaders of Shechem and Beth-millo; and let fire come out from the leaders of Shechem and from Beth-millo and devour Abimelech.”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요담은 누구인가요? (5절)

Who is Jotham? (v. 5)

세겜의 지도자들은 누구를 왕으로 삼았나요? (6절)

Who was made king by the leaders of Shechem? (v. 6)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노크로스한인교회, 박희철(GA)
뉴난한인감리교회, 남성원(G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나무들도 아는데 Even the Trees Know

기드온은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아내도, 첩도 많았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지도자가 많은 아내를 두는 것,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금하는데 기드온은 그 둘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재산 싸움으로 아들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많이 일어났기에 법으로 만들었을 텐데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비멜렉은 이복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 몰아 놓고 쳐 죽였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란 뜻입니다. 기드온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요담은 살아남았습니다. 70명 중 69명이 죽었습니다. 막내아들 요담은 숨어서 살아 남았습니다. 아비멜렉의 계획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마무리될 거란 생각은 오산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담이 산에 올라 외치는 내용입니다. 그가 뭐라 외쳤나요?

나무들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나무들의 왕으로 세우려는 이야기입니다. 감람나무는 풍성한 기름을 내는 일, 무화과나무는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일,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내는 일이 자신의 일이라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찬란한 백향목들을 태울 것이라 외칩니다.

나무들도 자신의 일(소명)을 잘 아는데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 합니다. 다 왕이 되려 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부르심에 충실하려 하지 않습니다. 요담의 외침이 우리들에게 울려 울려 들립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로 잘 살아가는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Gideon had a large family. He had many wives, and concubines. According to Deuteronomy, the leaders were prohibited to have many wives or to accumulate large amounts of treasures, but Gideon did not comply with either of the rules. The rules were probably made because of frequent bickering and killings among siblings over inheritances. It was no surprise that Abimelech gathered 70 of his half-brothers on one stone and murdered them. The name Abimelech means, “My father is a king.” When Gideon named his son, he must have thought of himself as a king already. Gideon began to crumble.

Jotham survived. 69 out of 70 perished. The youngest Jotham escaped by hiding. The plan of Abimelech was not perfect either. It was a miscalculation that all things would end easily and quickly. Today’s scripture deals with Jotham’s shouting at the top of the mountain. What did he shout about?

The trees went out to the olive tree, the fig tree, the vine, and the thornbush to anoint a king for themselves. The olive tree said producing plenty of oil, the fig tree said producing sweet and delicious fruits, the vine said producing good wine were their jobs and refused the request to be a king. But the thornbush accepted the proposal and shouted that the fire come out of the thornbush and consume the cedars of Lebanon!

Even the trees know what mission is assigned to them, but humans try to push themselves higher. Everyone wants to be a king and everyone wants to live their own ways. Nobody wants to be faithful to the role given to them or to their calling. The shouts of Jotham ring and ring in our ears. I pray that today is another day of becoming faithful believers of God and loyal disciples and followers of Jesus for all of u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기쁨의 연덕으로



11

2023 FEB
토요일 • Sat

돌라와 야일

Tola and Jair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을 섬겨 고난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 블레셋에서 구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 새218장(통369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목성본문

통독본문

사사기 10:1-16

사사기 10장

1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잇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주하면서

2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이십삼 년 만에 죽으매 사밀에 장사되었더라

3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이십이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4그에게 아들 삼십 명이 있어 어린 나귀 삼십을 탔고 성읍 삼십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땅에 있고 오늘날까지 하봇야일이라 부르더라

5야일이 죽으매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6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7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8그 해에 그들이 요단 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열여덟 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9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우므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10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11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12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13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14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시니라

15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16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Reading Insight

The people of Israel served pagan gods and suffered hardship.
The people of Israel cried out for help in Amon and Philistine.

🎵 Love Your God with Your Heart and Your True Mind

Meditation

Reading Plan

Judges 10:1-16

Judges 10

1 After Abimelech there arose to save Israel Tola the son of Puah, son of Dodo, a man of Issachar, and he lived at Shamir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2 And he judged Israel twenty-three years. Then he died and was buried at Shamir.

3 After him arose Jair the Gileadite, who judged Israel twenty-two years.

4 And he had thirty sons who rode on thirty donkeys, and they had thirty cities, called Havvoth-jair to this day, which are in the land of Gilead.

5 And Jair died and was buried in Kamon.

6 The people of Israel again did what wa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served the Baals and the Ashtaroth, the gods of Syria, the gods of Sidon, the gods of Moab, the gods of the Ammonites, and the gods of the Philistines. And they forsook the LORD and did not serve him.

7 So the anger of the LORD was kindled against Israel, and he sold them into the hand of the Philistines and into the hand of the Ammonites,

8 and they crushed and oppressed the people of Israel that year. For eighteen years they oppressed all the people of Israel who were beyond the Jordan in the land of the Amorites, which is in Gilead.

9 And the Ammonites crossed the Jordan to fight also against Judah and against Benjamin and against the house of Ephraim, so that Israel was severely distressed.

10 And the people of Israel cried out to the LORD, saying, "We have sinned against you, because we have forsaken our God and have served the Baals."

11 And the LORD said to the people of Israel, "Did I not save you from the Egyptians and from the Amorites, from the Ammonites and from the Philistines?"

12 The Sidonians also, and the Amalekites and the Maonites oppressed you, and you cried out to me, and I saved you out of their hand.

13 Yet you have forsaken me and served other gods; therefore I will save you no more.

14 Go and cry out to the gods whom you have chosen; let them save you in the time of your distress."

15 And the people of Israel said to the LORD, "We have sinned; do to us whatever seems good to you. Only please deliver us this day."

16 So they put away the foreign gods from among them and served the LORD, and he became impatient over the misery of Israel.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잇사갈 지파 사람 토라는 어디에 살고 있었나요? (1절)

Where did Tola, who belonged to the tribe of Issachar, live? (v. 1)

야일은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나요? (3절)

How long did Jair serve Israel as a judge? (v. 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 김형렬(GA)
사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 박진원(G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민자(나그네)의 삶 The Life of a Wayfarer

잇사갈 지파 사람 돌라는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사말에 살았다고 합니다. 자기 지파 땅에 왜 살 수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다른 지파의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이민자들을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사회적 약자 혹은 빈곤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모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집이나 땅을 갖고 시작하는 것과 보통의 이민자들처럼 문화도 언어도 친척도 아무것도 없이 맨땅에서 시작하는 것은 시작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내용의 두절 분량 밖에 되지 않는 잇사갈 지파 사람 돌라에게 눈과 마음이 가는 것은 아마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그마음이 통해서 인지 모르겠습니다.

희년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땅을 팔더라도 친족이나 같은 지파 사람에게 팔고 희년이 되면 돌려받는 신앙의 전통입니다. 또 땅을 사주는 것, 돌보이 바로 고엘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멀리 다른 지파의 땅으로 이민, 이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크고 작게 우리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꼭 땅을 주고 사고파는 것 이전에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가족들의 사랑과 헌신과 나눔이 있기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민자들을 대하는 눈과 마음, 태도가 고엘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내가 어렵지 않다고, 내가 신분이 해결되었다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늘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오늘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웃들을 향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과 뜻을 듣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Tola of the tribe Issachar lived in Shamir,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We do not know why Tola could not live in the land assigned to his tribe, but he was definitely a wayfarer living in another tribe's land. Many immigrants though maybe not all of them have a high probability of becoming part of a socially weak or poverty-stricken class. Not all hard-working people escape economic hardship. Families with inheritances of property or land are much better off than ordinary immigrants starting with only their bare hands living with a strange culture, different language, and without any relatives to depend on. There are only two sentences describing Tola of the tribe Issachar but our eyes and minds are drawn to him maybe because we ourselves are immigrants in the "land of the free and home of the brave."

The Year of Jubilee was a religious tradition to return the land to the original owner and the sale of the land, due to economic hardship, was allowed only to relatives or people within the same tribes. Purchasing the land and the role of helper were the duty of Goel. If this role was not well maintained, people had no choice but to relocate to the far away land of other tribes.

We receive the help of other families, big or small. Notwithstanding the sale and purchase of land for people in economic trouble, I exist today because of the love, serving and sharing of family including feeding, clothing, and helping. Our eyes, minds and attitude toward immigrants nowadays are watching if our duty as Goel are well kept. Just because I am no longer suffering, and just because my status was resolved favorably, if we ignore the pains of others, we are building obstacles to experience the abundant grace of the kingdom of God. The Bible always talks about helping socially oppressed people and compassion for our neighbors who even today cannot escape from poverty. I hope you will hear the voice and the will toda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대로



12

주일 말씀 요약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Sunday Sermon Not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쓰임 받음은 실력이 아니라 순종

김정호 목사(후러싱제일교회, NY)

구로사와 감독이 1980년에 “카게무샤”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전쟁 중에 대장군이 죽으니 군영에 들어온 도둑이 죽은 대장군과 비슷하게 생겼기에 그를 대장군의 자리에 앉히는 내용입니다. 적군은 대장군의 자리를 향해 화살을 날립니다. 그는 살려고 계속 도망칩니다. 도망가면 다시 끌려와서 그 자리에 앉는 일을 반복하던 어느 순간 자기가 대장군의 자리에 없으면 군사들이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을 보고 평생 쓸모없는 인생 살았던 자기도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깨달아 대장군의 자리를 지켜내는 내용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하기 싫으면 목사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신학대학원 2학년 때 감리사가 시카고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목사 안수 과정 심사 자리였습니다. 정신분석 테스트 결과 제게 남성우월적인 문화가 있어서 미국인 교회 파송이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으로 “연합감리교 목사가 안된다면 너는 어찌할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제 대답은 “여기가 아니면 어디라도 나를 쓸모 있다고 여기는 곳에서 목회할 것이다”였습니다. 그런데도 통과되어서 철없는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가끔 “카게무샤”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 탄압 정책을 썼던 루이 14세는 자격이 없는 가짜 왕이라는 소문을 덮으려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자신이 철저한 카톨릭 수호자라는 것을 교황청에 보이려고 개신교를 탄압했습니다. 가짜들은 감추려고 종교심으로 위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가 탁월하게 경건한 흉내를 내고 모든 것 다 잘하는 것 같이 보이려 하고 영적인 권위를 강조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면 실력과 자격을 논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들어 쓰심으로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선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순종이었습니다.

목사를 포함 교회 어느 직분도 오직 주님 뜻에 따라 쓰임 받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택함 받게 되면 제대로 그리되지 못한다는 부끄러움 때문에 오직 은혜를 의지해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초대 교회 가장 큰 문제가 특별한 영적인 능력과 체험을 자랑한 성령파, 지식이 있다고 교만했던 자유주의자들, 유대 문화 우월주의자들과 복음의 근간을 흔드는 율법주의자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일 잘하는(ability)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를 기쁨으로 내어놓는(availability)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를 칭찬 하셨습니다.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은혜에 목마른 가난한 심령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곳이기에 사람이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의 열심을 내어서는 안되는 곳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든 것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았다고 여겨 자기들이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 못하게 하시고 모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실력이 있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의 몫만큼 쓰임 받고 때가 되면 떠나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위대한 일'(significance)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시는 몫입니다. 더도 덜도 아닌 내가 감당해야 할 분량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섬기는 일에 쓰임 받음에 감사함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교인들 보다 믿음이 좋고 선하고 거룩해서 목사 노릇한다고 여긴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쓸모 있다고 여겨 주시니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그저 감사함과 두려움으로 내 자리를 지킬뿐입니다.

13

2023 FEB
월요일 • Mon

누가 우리를 위해 일어날까

Who Will Stand Up
For U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입다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 새357장(통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목성본문

통독본문

사사기 11:1-11

사사기 11장

- 1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 2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 3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돌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 4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 5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돌 땅에 가서
- 6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 7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 8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 9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 10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 11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Reading Insight

Jephthah became the commander of Israel and ruled Israel.

🎵 Encamped Along the Hills of Light

Meditation

Reading Plan

Judges 11:1-11

Judges 11

1 Now Jephthah the Gileadite was a mighty warrior, but he was the son of a prostitute. Gilead was the father of Jephthah.

2 And Gilead's wife also bore him sons. And when his wife's sons grew up, they drove Jephthah out and said to him, "You shall not have an inheritance in our father's house, for you are the son of another woman."

3 Then Jephthah fled from his brothers and lived in the land of Tob, and worthless fellows collected around Jephthah and went out with him.

4 After a time the Ammonites made war against Israel.

5 And when the Ammonites made war against Israel, the elders of Gilead went to bring Jephthah from the land of Tob.

6 And they said to Jephthah, "Come and be our leader, that we may fight against the Ammonites."

7 But Jephthah said to the elders of Gilead, "Did you not hate me and drive me out of my father's house? Why have you come to me now when you are in distress?"

8 And the elders of Gilead said to Jephthah, "That is why we have turned to you now, that you may go with us and fight against the Ammonites and be our head over all the inhabitants of Gilead."

9 Jephthah said to the elders of Gilead, "If you bring me home again to fight against the Ammonites, and the LORD gives them over to me, I will be your head."

10 And the elders of Gilead said to Jephthah, "The LORD will be witness between us, if we do not do as you say."

11 So Jephthah went with the elders of Gilead, and the people made him head and leader over them. And Jephthah spoke all his words before the LORD at Mizpah.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또 어떤 악을 저질렀나요? (10장 6절)

What other evil deeds did the Israelites commit?

(Judg 10:6)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1절)

What kind of a man was Jephthah? (v. 1)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 송희섭(GA)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 남궁 전(G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은혜를 입다

Received the Grace

입다는 그 출신만으로도 그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로 본처 아들들에게 구박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당시 무엇보다 재산(유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살 길이 막힌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입다는 형제들을 피해 돛이라고 하는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건달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입다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건달, 잡류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아나شم 레킴”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부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란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온 사람들이기에 우리 또한 ‘아나شم 레킴’이란 생각도 합니다. 우리는 월 그렇게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처럼 똑같은 죄와 실수를 반복하며 사는 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입다의 이름 뜻처럼 “그가 자유케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나 자신뿐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나 또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When we look at the birth status of Jephthah we can imagine how wicked his life was. His father was a Gilead; his mother was a prostitute and Jephthah grew up being persecuted by other sons of his father. At that time, those who were prohibited to inherit in ancient society were almost outcasts who were prevented from having a normal livelihood. Jephthah escaped from his brothers and lived in a land called Tob. Then he met certain people. They were called “adventurers” by translation. Who were those adventurers gathered around Jephthah?

The words “wastrel” or “adventurers” were a translation of the Hebrew word, “anashim rekim,” meaning “those who do not possess anything.” Rather than negative connotations, we come to the feeling of those in need of help. We, as Korean immigrants, also came to this country “without any possession.” I think we too may be called “anashim rekim.” With what possessions were we born into this world and why are we repeating the same sins and mistakes again and again like the Israelites?

What we need today is the grace of God like the meaning of the name Jephthah, “He will make you free.” Those of us who are blessed with the grace of God should live our lives that not only make our own lives free but also make the lives of those who come in contact with us free. We are redeemed free from our sins. We are the people living in true freedom in Jesus. Most of all I also received the grace of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연덕으로



14

2023 FEB
화요일 • Tue

자녀사랑

Love of Childre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의 싸움에서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이 죽습니다. 사사 입산, 엘론, 압돈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 새249장(통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사기 12:8-15

사사기 12장

8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9 그가 아들 삼십 명과 딸 삼십 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삼십 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칠 년이라

10 입산이 죽으매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11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12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으매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13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14 그에게 아들 사십 명과 손자 삼십 명이 있어 어린 나귀 칠십 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팔 년이라

15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으매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Reading Insight

In the war between Jephthah and the people of Ephraim, 42,000 Ephraimites were killed. Then Judges Ibzan, Elon, and Abdon led Israel.

🎵 Come, We That Love The Lord

Meditation

Reading Plan

Judges 12:8-15

Judges 12

8 After him Ibzan of Bethlehem judged Israel.

9 He had thirty sons, and thirty daughters he gave in marriage outside his clan, and thirty daughters he brought in from outside for his sons. And he judged Israel seven years.

10 Then Ibzan died and was buried at Bethlehem.

11 After him Elon the Zebulunite judged Israel, and he judged Israel ten years.

12 Then Elon the Zebulunite died and was buried at Aijalon in the land of Zebulun.

13 After him Abdon the son of Hillel the Pirathonite judged Israel.

14 He had forty sons and thirty grandsons, who rode on seventy donkeys, and he judged Israel eight years.

15 Then Abdon the son of Hillel the Pirathonite died and was buried at Pirathon in the land of Ephraim, in the hill country of the Amalekite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사사 엘론은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나요? (11절)

How long did Judge Elon lead Israel? (v. 11)

압돈이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은 무엇인가요? (14절)

What did Abdon bequeath to his children? (v. 1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아틀란타한인교회, 조영진(GA)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 이준협(G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권력의 맛 vs. 하나님의 종

The Taste of Power and the Servant of God

사람들이 권력의 맛을 보면 놓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사들의 모습에서도 계속 보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들이 권력의 맛을 보더니 권력과 명예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도 보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권력의 맛을 물려줘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의 복된 삶을 전해줘야 할까요? 우리는 답을 알지만 답대로 살기가 참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모든 부모는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을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것을 제대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삶의 향기가 자녀들에게 저절로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종 된 기쁨을 알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 나라의 왕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세 사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입산은 30명의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다른 가문에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주변국과 안정을 취하려 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국제 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입니다. 엘론은 어디 묻혔는지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고 압돈은 아들과 손자들이 나귀 일흔 마리를 탔다는 부를 상속한 내용뿐입니다. 허탈하기까지 한 이 내용을 묵상하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이 계속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Once people taste power, it is said that people cannot let go of it. We can detect the same from the judges. The Spirit of the LORD at one time came upon those people but once they tasted the power they cannot let go of the power and the accompanying privilege. Some of them show zeal to pass the power to their children. What must we pass on to our children? Must we pass on the taste of power? Or must the blessed life of those of us to whom the Spirit of God came be passed on? We know the right answer, but it is also true that it is difficult to live by the right answer.

We as parents all want happiness for our children. Then we must bequeath the joy of living as children of God. I must first experience it genuinely well so that the aroma of fragrance of our life deeply immersed in the Spirit of God must naturally permeate to our children. If we truly love our children, we must become parents who let them know the joy of being the servants of God.

We see in today's scripture the depiction of three judges who are not much different from the kings in neighboring countries. Ibzan acquired 30 daughters-in-laws from other countries. Ibzan may have wanted a stable relationship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it appears that Ibzan may have considered the relationships with neighboring countries more important than his relationship with God. Elon was briefly mentioned regarding where he was buried, and Abdon was mentioned regarding seventy donkeys that his sons and grandsons rode and received as inheritance. As we meditate on these stories that are almost hollow stories, we cannot but agonize what we as believers must bequeath to our children. We pray that the joy and peace that we enjoy in our LORD would be continuously experienced not only by us but also by our children and the children of our children.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15

2023 FEB
수요일 • Wed

나실인

Nazirit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천사가 단 지파 마노아에게 나타납니다. 블레셋 통치 40년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삼손이 태어납니다.

🎵 새264장(통198장) 정결하게 하는 샘이

목성본문

통독본문

사사기 13:1-7

사사기 13장

- 1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십 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 2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 3 여호와와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 4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 5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 6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우므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 7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Reading Insight

The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Manoah from the clan of the Danites. Samson appeared to save Israel from 40 years of oppressive reign by Philistine.

🎵 When I Saw the Cleansing Fountain

Meditation

Reading Plan

Judges 13:1-7

Judges 13

1 And the people of Israel again did what wa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so the LORD gave them into the hand of the Philistines for forty years.

2 There was a certain man of Zorah, of the tribe of the Danites, whose name was Manoah. And his wife was barren and had no children.

3 And the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the woman and said to her, “Behold, you are barren and have not borne children, but you shall conceive and bear a son.

4 Therefore be careful and drink no wine or strong drink, and eat nothing unclean,

5 for behold, you shall conceive and bear a son. No razor shall come upon his head, for the child shall be a Nazirite to God from the womb, and he shall begin to save Israel from the hand of the Philistines.”

6 Then the woman came and told her husband, “A man of God came to me, and his appearance was like the appearance of the angel of God, very awesome. I did not ask him where he was from, and he did not tell me his name,

7 but he said to me, ‘Behold, you shall conceive and bear a son. So then drink no wine or strong drink, and eat nothing unclean, for the child shall be a Nazirite to God from the womb to the day of his death.’”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해 또 다시 몇 년간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게 하셨나요?(1절)

How many years did God allow Philistine to reign over Israel again because of repeated evil acts of the descendants of Israel? (v. 1)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태어나게 될 아이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나요? (4-5절)

What did the angel of God tell Manoah not to do with the newly born child? (vv. 4-5)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정결한 맘 주소서

Give Us Pure Hearts

나실인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머리를 깎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는 사람 또는 동물의 시체를 가까이해서는 안 됩니다. 나실인은 ‘따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곧바로 나실인이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무뎠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좋아지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겠다는 결심도 잠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마다 부끄러워집니다. “정결한 맘 주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며 하루를 엽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간이나 금식하는 기간에는 유흥이나 다른 즐거움들을 잠시 끊게 합니다. 그러한 영적 훈련은 나를 괴롭히고 기쁨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간절한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보내 주셔서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 따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아들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Nazirites had certain duties that are spelled out in detail in Numbers 6. First, Nazirites must not drink wine or fermented drink. Second, no razor should be used on their head. Third, they should not be near carcasses of people or animals. Nazirites are “separated apart from people.” Samson became Nazirite from birth by the command of God.

As our faith journey became less sensitive as time passed by, as our resolve to be more active when situations improved after the pandemic were short lived, and as we discover each time that we do not live distinguished lives as children of God, I feel ashamed. “Give us pure hearts, Oh LORD! Renew our honest souls.” I open another day by praying to God to make us anew. While we pray earnestly and while we fast and pray, we pause from doing any fun things or anything pleasant. That kind of spiritual training is not meant to bother me or suppress any joy. It is meant for me to live an earnest life of prayer to be nearer to God.

Manoah prayed to God, “O Lord, I beg you, let the man of God you sent to us come again to teach us how to bring up the boy who is to be born.” We too should pray, “Please distinguish our children as present-day Nazirites and allow them to become the sons and daughters of faith to do the will of God,” and recover the joy of salvation.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존스크리한인연합감리교회, 서정일(GA)
트리니티한인교회, 김경곤(GA)
목회자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연덕으로



16

2023 FEB
목요일 • Thu

사랑에 눈이 먼 삼손

Samson Blinded
by Lov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삼손은 딘나로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와 사랑에 빠져 결혼합니다.
삼손은 사자를 죽이고 꿀을 먹은 이야기를 수수께끼로 냅니다.

🎵 새304장(통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사기 14:1-9

사사기 14장

- 1 삼손이 딘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 2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딘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 3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 4 그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 5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딘나에 내려가 딘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 6 여호와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 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 7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 8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 떼와 꿀이 있는지라
- 9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Reading Insight

Samson went down to Timna, saw a young Philistine woman, fell in love with her and got married. Samson posed a riddle based on the story of eating honey after killing a young lion.

🎵 The Love of God Is Greater Far

Meditation

Reading Plan

Judges 14:1-9

Judges 14

1 Samson went down to Timnah, and at Timnah he saw one of the daughters of the Philistines.

2 Then he came up and told his father and mother, “I saw one of the daughters of the Philistines at Timnah. Now get her for me as my wife.”

3 But his father and mother said to him, “Is there not a woman among the daughters of your relatives, or among all our people, that you must go to take a wife from the uncircumcised Philistines?” But Samson said to his father, “Get her for me, for she is right in my eyes.”

4 His father and mother did not know that it was from the LORD, for he was seeking an opportunity against the Philistines. At that time the Philistines ruled over Israel.

5 Then Samson went down with his father and mother to Timnah, and they came to the vineyards of Timnah. And behold, a young lion came toward him roaring.

6 Then the Spirit of the LORD rushed upon him, and although he had nothing in his hand, he tore the lion in pieces as one tears a young goat. But he did not tell his father or his mother what he had done.

7 Then he went down and talked with the woman, and she was right in Samson’s eyes.

8 After some days he returned to take her. And he turned aside to see the carcass of the lion, and behold, there was a swarm of bees in the body of the lion, and honey.

9 He scraped it out into his hands and went on, eating as he went. And he came to his father and mother and gave some to them, and they ate. But he did not tell them that he had scraped the honey from the carcass of the lio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삼손은 누구와 결혼하겠다고 했나요? (1절)

Who did Samson say he would marry? (v. 1)

삼손은 누구의 힘으로 사자를 찢어 버렸나요? (6절)

What power did Samson use to tear apart the lion? (v. 6)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해밀턴밀한인교회, 정찬웅(GA)
갈보리연합감리교회, 남규우(HI)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무감각한 삼손

Insensitive Samson

사람이 힘을 갖기 시작하면 실수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힘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무섭습니다. 삼손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버리는 힘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점점 무감각해져 갑니다. 꿈을 드리면서도 죽은 사자의 몸에서 떴었다고 말하지 않고 부모를 속이는 것은 물론 삼손은 속이는 일에 익숙해져 보입니다. 삼손이 사자를 죽인 이야기를 어릴 때 참 영웅담으로 멋진 이야기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이 힘이 세다는 것만 강조한 나머지 그 뒤에 가려진 이야기 즉, 그가 나실인으로 부정한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 규례를 깨트린 이야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블레셋 처녀를 만나 결혼을 하는 것도 나실인의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인데 말입니다.

예의 바른 것과 하나님의 뜻에 무감각한 것은 다릅니다. 사람들 보기에 힘이 센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은 다릅니다. 블레셋 처녀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사랑이란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풍습과 전통을 무시하고 블레셋 사람처럼 행동하고 블레셋 사람의 전통과 문화대로 사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에 대해 무감각해진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신 것은,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잘 지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삿 14:3) 삼손은 이때 자신의 판단과 눈을 이미 잃었던 것입니다.

One common mistake of people who begin to acquire power is to live according to their own strength through their own will. This is quite frightening. The Spirit of God helped Samson to acquire so much strength so as to be able to tear apart a lion with his bare hands. But Samson became more insensitive as time went by. As Samson offered the honey from the carcass of the dead lion, he did not tell his parents where the honey came from thereby tricking his parents. Samson appeared to be quite used to cheating. I remember hearing the heroic story of Samson killing the lion with his bare hands when I was young. But the story only emphasized how strong Samson was and did not mention what was hidden behind it, that is, Samson as a Nazirite should not have done unfair things and should not have violated the rules. Having met and married a Philistine woman were not worthy acts of being a Nazirite.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being courteous and being insensitive to the will of God.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being seen as strong by people and the strength to obey the Word of God. Loving the Philistine woman in the name of love is different from following the tradition and culture of the Philistines and acting like a Philistine ignoring the customs and tradition of Israel.

Today, we as believers need to look back to see if we have become insensitive to the values and culture of the Kingdom of God. God called Samson and gave him strength to be used for the people of God and to keep the culture of the Kingdom of God. When Samson said, “I like the woman” (v. 3), he already lost his eyes and ability to make the right discernment.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17

2023 FEB
금요일 • Fri

삼손의 복수

Revenge
of Samso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삼손이 아내를 빼앗기자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을 태워버립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 천 명을 죽이고 승리합니다. 삼손이 사사가 됩니다.

🎵 새342장(통395장) 너 시험을 당해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사기 15:9-20

사사기 15장

9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 한지라**10**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11** 유다 사람 삼천 명이 애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12**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13**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 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14** 삼손이 레히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 진지라**15**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 명을 죽이고**16**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여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 명을 죽였도다 하니라**17**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 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18**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19** 하나님께서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20**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십 년 동안 지냈더라

Reading Insight

When Samson's wife was taken away, he burned the crops of the field in Philistine. Samson killed one thousand people and became victorious. Samson became a leader.

Yield Not to Temptation

Meditation

Reading Plan

Judges 15:9-20

Judges 15

9 Then the Philistines came up and encamped in Judah and made a raid on Lehi.

10 And the men of Judah said, "Why have you come up against us?" They said, "We have come up to bind Samson, to do to him as he did to us."

11 Then 3,000 men of Judah went down to the cleft of the rock of Etam, and said to Samson, "Do you not know that the Philistines are rulers over us? What then is this that you have done to us?" And he said to them, "As they did to me, so have I done to them."

12 And they said to him, "We have come down to bind you, that we may give you into the hands of the Philistines." And Samson said to them, "Swear to me that you will not attack me yourselves."

13 They said to him, "No; we will only bind you and give you into their hands. We will surely not kill you." So they bound him with two new ropes and brought him up from the rock.

14 When he came to Lehi, the Philistines came shouting to meet him. Then the Spirit of the LORD rushed upon him, and the ropes that were on his arms became as flax that has caught fire, and his bonds melted off his hands.

15 And he found a fresh jawbone of a donkey, and put out his hand and took it, and with it he struck 1,000 men.

16 And Samson said, "With the jawbone of a donkey, heaps upon heaps, with the jawbone of a donkey have I struck down a thousand men."

17 As soon as he had finished speaking, he threw away the jawbone out of his hand. And that place was called Ramath-lehi.

18 And he was very thirsty, and he called upon the LORD and said, "You have granted this great salvation by the hand of your servant, and shall I now die of thirst and fall into the hands of the uncircumcised?"

19 And God split open the hollow place that is at Lehi, and water came out from it. And when he drank, his spirit returned, and he revived. Therefore the name of it was called En-hakkore; it is at Lehi to this day.

20 And he judged Israel in the days of the Philistines twenty year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삼손이 블레셋 사람 천 명을 죽일 때 사용한 것은 무엇인가요? (15절)

What did Samson use when he killed one thousand Philistines? (v. 15)

삼손은 승리한 후 뭐라고 노래했나요? (16절)

What did Samson sing after the victory? (v. 16)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감람연합감리교회, 이영성(HI)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한의준(HI)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승리에 취한 삼손

Samson Was Intoxicated by Victory

삼손이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도왔다는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부족한 삼손이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와시는 것을 봅니다. 꼭 우리와 같습니다. 놓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취해야 할 것은 말씀이지 승리만은 아님을 오늘 삼손의 노래를 통해 보게 됩니다. 꼭 자신이 잘해서 자신의 힘으로 천 명을 죽였다고 스스로를 높이며 노래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 이젠 멋지다기 보다 초라해 보입니다. 그리고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우리 삶에 주어진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 하나 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했다고 내가 천 명을 죽였다고 스스로를 높이며 살아갈 것인가? 실컷 자신의 승리를 노래하다가 갑자기 삼손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목이 마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삼손을 보면서 자신이 싸웠기에, 내가 힘들었기에 나에게 물을 달라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극심한 갈증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승리에 취해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취해 살아가며 예수님의 이름 높이는 오늘 되길 기도합니다.

Samson was quite victorious. There is a clear written record to prove that the Spirit of God helped him. Though Samson was an imperfect man, we see that God helped him till the end. He is exactly like us. God does not let go of us and even today God helps us with the Word of God and with the Spirit of God. We see today through the songs of Samson that what we really need to choose is the Word, not just victory. As we see Samson singing and boasting of himself as if it was just his own strength and strategy that killed one thousand Philistines, his hubris looks so trivial, not grandiose. He even looks pathetic.

We must remember that winning the war and winning hard battles in our lives have only one purpose and that one purpose is to praise the Lord. How long are we going to live our lives boasting of ourselves, claiming that we killed one thousand? While Samson was singing, intoxicated in his own victory, he suddenly sought God. He said, "My throat is thirsty." As we watch Samson praying to satisfy his own desire, as he claims that it was his battle and his fight and asks for water, we are reminded of Jesus who shed sweat and blood for us on the cross. We are reminded of Jesus who suffered and endured extreme thirst to save me and to redeem me.

I pray that today would be another day for us to exalt the name of Jesus, not to live intoxicated in victory, but to live in accordance with the teachings and the Word of Jesus Christ who lives in m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18

2023 FEB
토요일 • Sat삼손과
들릴라Samson
and Delilah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하여 힘의 근원을 알아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 눈을 뽑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삼손은 블레셋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며 삼천 명을 죽이고 자신도 죽게 됩니다.

🎵 새314장(통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사기 16:23-31

사사기 16장

23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24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 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25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재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 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재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26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27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 명 가량이니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28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며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뺄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29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30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31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십년 동안 지냈더라

Reading Insight

Delilah deluded Samson and found out the source of his strength. Samson was seized by Philistines, his eyes were gouged out and he was set to grinding in the prison. Samson destroyed the Dagon temple of Philistine, killed three thousand Philistines and died there.

🎵 More Love to Thee, O Christ

Meditation

Reading Plan

Judges 16:23-31

Judges 16

23 Now the lords of the Philistines gathered to offer a great sacrifice to Dagon their god and to rejoice, and they said, “Our god has given Samson our enemy into our hand.”

24 And when the people saw him, they praised their god. For they said, “Our god has given our enemy into our hand, the ravager of our country, who has killed many of us.”

25 And when their hearts were merry, they said, “Call Samson, that he may entertain us.” So they called Samson out of the prison, and he entertained them. They made him stand between the pillars.

26 And Samson said to the young man who held him by the hand, “Let me feel the pillars on which the house rests, that I may lean against them.”

27 Now the house was full of men and women. All the lords of the Philistines were there, and on the roof there were about 3,000 men and women, who looked on while Samson entertained.

28 Then Samson called to the LORD and said, “O Lord GOD, please remember me and please strengthen me only this once, O God, that I may be avenged on the Philistines for my two eyes.”

29 And Samson grasped the two middle pillars on which the house rested, and he leaned his weight against them, his right hand on the one and his left hand on the other.

30 And Samson said, “Let me die with the Philistines.” Then he bowed with all his strength, and the house fell upon the lords and upon all the people who were in it. So the dead whom he killed at his death were more than those whom he had killed during his life.

31 Then his brothers and all his family came down and took him and brought him up and buried him between Zorah and Eshtaol in the tomb of Manoah his father. He had judged Israel twenty year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들릴라는 무슨 유혹으로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는 스파이가 되었나요? (5절)

What kind of delusion did Delilah use to become a spy and trick Samson to reveal the source of his strength? (v. 5)

삼손은 거짓말로 유혹을 넘어가지만 결국 자신의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했나요?(17절)

Samson evaded delusions by lying but eventually did he reveal the source of his strength? (v. 17)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 원흥연(회)
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 오대연(회)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시각을 바꾸자

Let Us Change Our Perspective

삼손은 최후를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보았던 그가 좋아했던 여인 또 다른 여인을 통해 그는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집니다.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한순간에 넘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유혹에 넘어가는 지도자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도자들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따르지는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욕망과 유혹에 눈길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며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삼손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오.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삿 16:17) 그런데 20절에 삼손의 힘이 사라진 것은 머리카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옳지 않은 것을 행한 것이 사사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봅니다. 결국 삼손의 눈을 빼 버린 형벌을 보면서 이 시대에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돌아봅니다. 바로 보는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백성들도 바로 보는 눈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커녕 현재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바로 보는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에도 그 눈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는 판단과 기준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Samson faced his last days but was handed over to the Philistines by a woman he loved. No matter how strong a person may be, we see here that a person can fall instantly and think about other leaders who have fallen by delusions. Not only leaders but also so-called followers of Jesus not following Jesus at all. To follow Jesus means to keep our eyes on the same target as Jesus. It is people not paying attention to other desires and temptations but only focusing their attention on the will of God.

Samson confessed with his own lips, “No razor has ever been used on my head, because I have been a Nazirite set apart from God since birth. If my head were shaved, my strength would leave me, and I would become as weak as any other man” (v. 17). But we know in verse 20 that it was not the hair itself but because God had left him. We see here that the problem with leaders in the period of Judges was the unrighteous acts that they committed in the eyes of God. As we see the punishment of gouging Samson’s eyes, we realize the tragic result that not having the right perspective will bring us. Leaders of a country especially should have the right perspective. As people begin losing the ability to have the right perspective, they tend to cling to what they see today, are only eager to fill their greed and pay no attention to the hope of the Kingdom of God.

Today we need to have the right perspective of the Kingdom of God and we must keep our eyes safe from any temptation. I pray for our churches and the leaders of our churches. I pray that we restore the judgment and standard that are approved by God, not by us. I pray that our lives be filled with beautiful things that are approved and blessed by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연대로



19

주일 말씀 요약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Sunday Sermon Not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봄이 오고 있네요

이승우 목사(워싱턴한인연합교회, MD)

오늘은 한 해를 24절기로 나누고 그 절기가 시작하는 입춘이 15일 지난 후 절기인 우수입니다. 우수라는 말은 “빗물”이라는 뜻으로, 이때가 되면 긴 겨울철 추위가 풀려가고 겨우내 내린 눈과 얼었던 얼음이 녹아 빗물이 되면서 한파와 냉기가 점차 사라지고 봄이 온 것을 알립니다. 입춘과 함께 겨울의 마무리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우수가 되면 겨울 추위가 끝나가고 봄바람이 불어온다고 해서 예부터 “대동강 물이 풀리게 되는 날”이라는 전래가 있으며 그래서인지 땅에는 초목의 새싹이 트이기 시작하여 봄이 오게 됨을 알게 됩니다.

물론 24절기가 본래 중국 화북지역에서부터 유래된 것이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워싱턴의 기후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서 우수가 돼도 아침 기온이 화씨로 30도(섭씨로 영하) 아래로 떨어지는 추위가 계속되거나 눈이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가 지나면 화씨로 10도(섭씨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고 봄철에 꽃이 피는 나무들에는 서서히 꽃눈이 돌아나고 얼었던 땅이 녹는 등 봄으로 점차 접어들기 때문에 겨울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다.

눈과 얼음이 녹아 빗물이 되는 우수를 맞이하면서 계절적으로는 봄이 다가오고, 생활적으로는 팬데믹이 풀려가는 즈음에 언제부터인가 우리 자신에게 경직되어 있는 우리네 마음도 풀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20

2023 FEB
월요일 • Mon

타락의 끝

The End of the Fall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에브라임 산간 지방 사람인 미가가 자신의 집에 신당을 만들고 레위인을 자신의 집에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단 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와서 신당들과 제사장을 데리고 갑니다.

♪ 새510장(통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목상본문

통독본문

사사기 17:1-13

사사기 17-18장

- 1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 2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 3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 4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이백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 5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 6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 7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헬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 8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헬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 9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헬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려 가노라 하는지라
- 10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 11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이 됨이라
- 12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 13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Reading Insight

Micah, a local of the mountains of Ephraim, builds a shrine in his house and establishes a Levite as his home priest. The people of the tribe of Dan come to Micah's house and take the shrines and the priest with them.

🎵 Brightly Beams Our Father's Mercy

Meditation

Reading Plan

Judges 17:1-13

Judges 17-18

1 There was a man of the hill country of Ephraim, whose name was Micah.

2 And he said to his mother, "The 1,100 pieces of silver that were taken from you, about which you uttered a curse, and also spoke it in my ears, behold, the silver is with me; I took it." And his mother said, "Blessed be my son by the LORD."

3 And he restored the 1,100 pieces of silver to his mother. And his mother said, "I dedicate the silver to the LORD from my hand for my son, to make a carved image and a metal image. Now therefore I will restore it to you."

4 So when he restored the money to his mother, his mother took 200 pieces of silver and gave it to the silversmith, who made it into a carved image and a metal image. And it was in the house of Micah.

5 And the man Micah had a shrine, and he made an ephod and household gods, and ordained one of his sons, who became his priest.

6 In those days there was no king in Israel.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7 Now there was a young man of Bethlehem in Judah, of the family of Judah, who was a Levite, and he sojourned there.

8 And the man departed from the town of Bethlehem in Judah to sojourn where he could find a place. And as he journeyed, he came to the hill country of Ephraim to the house of Micah.

9 And Micah said to him, "Where do you come from?" And he said to him, "I am a Levite of Bethlehem in Judah, and I am going to sojourn where I may find a place."

10 And Micah said to him, "Stay with me, and be to me a father and a priest, and I will give you ten pieces of silver a year and a suit of clothes and your living." And the Levite went in.

11 And the Levite was content to dwell with the man, and the young man became to him like one of his sons.

12 And Micah ordained the Levite, and the young man became his priest, and was in the house of Micah.

13 Then Micah said, "Now I know that the LORD will prosper me, because I have a Levite as priest."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미가가 돌려준 은화로 그 어머니는 무엇을 만들었나요? (3절)

What did the mother make from the silver coins that Micah returned to her? (v. 3)

미가가 젊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하는데 무엇을 제안했나요? (10절)

What did Micah propose when hiring a young Levite as a priest? (v. 10)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 이성현(HI)
울리브연합감리교회, 김배선(HI)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개인 전용 하나님의 집

A Private House of God

얼핏 들으면 하나님의 집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 전용이란 단어가 우리를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불편함이 없다면 우리는 이웃에 대한 생각도 하나님의 마음에도 관심이 하나도 없는 개인의 복만 중요시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 전용이 주는 매력은 분명 있습니다. 개인 별장과 개인 비행기, 개인 수영장... 매력적이고 우리에게 편안함과 분리된 안정감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삶의 공간 시간도 중요하고 고요함과 수행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기쁨, 아낌없이 나누는 나눔, 돕고 섬기는 사랑의 실천이 빠진 삶은 공허할 것입니다.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필요한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희생과 헌신을 통해 가정은 굳건히 서 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집이고 병들고 아프고 소외된 자들이 와서 평안과 쉼, 회복을 얻는 곳입니다.

신당(하나님의 집)의 제사장을 고용하는데 일 년 치 연봉이 은화 10이라 합니다. 미가가 잃어버렸던 돈이 은 천백이니 제사장의 110년 치 연봉에 달하는 돈이었던 것입니다. 돈으로 제사장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까지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타락한 사사 시대가 더 이상 이 시대에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At first glance, God's house is necessary and important. But the phrase "private only" will make us uncomfortable. If there is no discomfort here, we will be no different from those who value only the blessing of the individual, who has neither thoughts of his neighbor nor the heart of God in them. There is definitely an attraction that this word "private" gives. Private villa, private plane, private pool.... It is true that it is attractive and gives us a sense of comfort and security of separation.

However, while it is true that the spatial time of an individual's life is also important and requires stillness and performance, a life that lacks the joy of community together, the generous sharing, and the practice of love to help and serve, will be empty. It is a necessary act from the family, the smallest unit of the community. Because we know very well that through sacrifice and dedication, the family is standing firm. The House of God is a house where everyone comes and prays and where the sick and the marginalized come and find peace, rest, and restoration.

The priest of the new church (house of God) is hired and the annual salary per year is said to be 10 silver coins. The money that Micah lost was a thousand and a hundred pieces of silver, which amounted to the priest's 110-year salary. With money, the priest can be bought but money cannot move God. I hope that the fallen era of judges, who lived in a world where money was everything and who tried to manipulate God's house as their will, will no longer be repeated in this ag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기쁨의 연덕으로



21

2023 FEB
화요일 • Tue

끔찍한 일

Terrible Work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데려와 베냐민 지파의 한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불량배들이 레위인 첩을 겁탈하고 죽이게 됩니다.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12토막 내어 이스라엘 12 지파에게 보냅니다.

새438장(통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시기 19:15-30

사시기 19장

15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16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 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17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18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헬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 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헬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19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쟁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20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21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22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23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24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25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26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 겨 밝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27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28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29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찢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30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Reading Insight

The Levite brought his concubine and stayed in the home of an old man from the tribe of Benjamin. The rogues rape and kill the Levite concubine. The Levite sent 12 body parts of his concubine to the 12 tribes of Israel.

🎵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Meditation

Reading Plan

Judges 19:15-30

Judges 19

15 and they turned aside there, to go in and spend the night at Gibeah. And he went in and sat down in the open square of the city, for no one took them into his house to spend the night.

16 And behold, an old man was coming from his work in the field at evening. The man was from the hill country of Ephraim, and he was sojourning in Gibeah. The men of the place were Benjaminites.

17 And he lifted up his eyes and saw the traveler in the open square of the city. And the old man said, "Where are you going? And where do you come from?"

18 And he said to him, "We are passing from Bethlehem in Judah to the remote parts of the hill country of Ephraim, from which I come. I went to Bethlehem in Judah, and I am going to the house of the Lord, but no one has taken me into his house.

19 We have straw and feed for our donkeys, with bread and wine for me and your female servant and the young man with your servants. There is no lack of anything."

20 And the old man said, "Peace be to you; I will care for all your wants. Only, do not spend the night in the square."

21 So he brought him into his house and gave the donkeys feed. And they washed their feet, and ate and drank.

22 As they were making their hearts merry, behold, the men of the city, worthless fellows, surrounded the house, beating on the door. And they said to the old man, the master of the house, "Bring out the man who came into your house, that we may know him."

23 And the man, the master of the house, went out to them and said to them, "No, my brothers, do not act so wickedly; since this man has come into my house, do not do this vile thing.

24 Behold, here are my virgin daughter and his concubine. Let me bring them out now. Violate them and do with them what seems good to you, but against this man do not do this outrageous thing."

25 But the men would not listen to him. So the man seized his concubine and made her go out to them. And they knew her and abused her all night until the morning. And as the dawn began to break, they let her go.

26 And as morning appeared, the woman came and fell down at the door of the man's house where her master was, until it was light.

27 And her master rose up in the morning, and when he opened the doors of the house and went out to go on his way, behold, there was his concubine lying at the door of the house, with her hands on the threshold.

28 He said to her, "Get up, let us be going." But there was no answer. Then he put her on the donkey, and the man rose up and went away to his home.

29 And when he entered his house, he took a knife, and taking hold of his concubine he divided her, limb by limb, into twelve pieces, and sent her throughout all the territory of Israel.

30 And all who saw it said, "Such a thing has never happened or been seen from the day that the people of Israel came up out of the land of Egypt until this day; consider it, take counsel, and speak."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갈 곳 없는 레위 사람을 누가 재워 주었나요? (16절)

Who put up the Levites who had nowhere to go? (v. 16)

레위 사람은 문간에 쓰러져 있는 자기 첩에게 어떻게 했나요? (28-29절)

What did the Levite do to his concubine, who was lying in the doorway? (vv. 28-29)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디오인한인연합감리교회, 이병훈(IA)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 최군임(I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잔인한 시대 Brutal Times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은 엄격하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칠 뿐 아니라 지켜야 하는 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레위인(제사장, 예배 인도자)마저도 말입니다. 사사기 후반부에 계속되는 종교지도자들의 타락 이야기는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가 혹 무너지고 타락했다 해도 돌아오게 할 수 있고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상실된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주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돌봐야 할 자가 본인의 사명까지 잃어버린 것입니다.

레위 사람과 장막에서 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9절에 히브리어 성경은 “아침 일찍 자네의 집으로 떠나게”에서 집을 ‘장막’이라 말합니다. 부요한 집에서 자란 여인은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탐한 레위인에게서 어떤 사명도 부르심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힘들, 고통, 어려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장인의 환대를 받고 떠난 레위인은 기브아의 한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끔찍한 결말로 갑니다. 레위 사람은 살겠다고 자신의 첩을 불량배들이 있는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죽어 있는 아내에게 아침에 나와 한다는 말이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입니다. 나그네를 돌보는 나그네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물건 대하듯 하는 레위 사람을 보면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다시 묻게 됩니다. 자신의 가정도 사랑으로 지키지 못하는 제사장들의 타락과 출애굽 이후로 이러한 끔찍한 일을 본 적이 없다는 사사기를 기록한 자의 기록을 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과 잔인한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듯합니다.

The Levite's appearance with his concubine is of one who is supposed to strictly teach and keep God's law, but who has lost his identity. Even the Levites (priests, worship leaders)! The story of the fall of religious leaders that continues in the second half of Judges shows a time when politics, society, economics, and all sectors have lost spiritual leaders who can bring back and correct them even if they have collapsed and fallen. Those who are to know God's law, repent, and spiritually care for those who return have lost their mission.

Living in the tent with the Levite would not have been an easy task. In verse 9, the Hebrew Bible refers to the house as a “tent” in “Let me leave your house early in the morning.” A woman who grew up in a wealthy house would rather not have found any mission or calling from the Levite who coveted her property. Those who could not live in the kingdom of God whether it is a tent or palace or anywhere else may well face hardships, pains, and difficulties.

The Levite, who left after being welcomed by his father-in-law, stayed in the home of an old man in Gibeon. It has a terrible ending. The Levite sends his concubine out to the rogues to save himself. In the morning he says to the dead woman, “Get up, let us go.” Seeing the sojourners who cared for the strangers and the Levites who treated his concubine as if she was a thing, we may ask again what message the Book of Judges has for us. We see the fall of a priest who failed to protect his family with love, and at the same time see the author of Judges saying that he had never seen such a terrible thing since the Exodus. Even now, they still seem to be documenting terrible things and cruel times that happen without fear of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22

2023 FEB
수요일 • Wed

전쟁의 참혹함

The Horrors
of War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베냐민과 전쟁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 전체에서 40만 명이 모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내전입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 새425장(통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사기 20:34-48

사사기 20장

34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 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3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이만 오천백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36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37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라

38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39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삼십 명 가량을 쳐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 이틀임없이 처음 싸움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40 연기 구름이 기둥 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41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42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43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으매

44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만 팔천 명이니 다 용사더라

45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립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오천 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뎈에 이르러 또 이천 명을 죽였으니

46 이 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이만 오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47 베냐민 사람 육백 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립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48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Reading Insight

400,000 people gather from all over Israel to wage war against the tribe of Benjamin. It is a civil war that takes place within the Israeli community with tremendous casualties.

🎵 Have Thine Own Way, Lord

Meditation

Reading Plan

Judges 20:34-48

Judges 20

34 And there came against Gibeah 10,000 chosen men out of all Israel, and the battle was hard, but the Benjaminites did not know that disaster was close upon them.

35 And the LORD defeated Benjamin before Israel, and the people of Israel destroyed 25,100 men of Benjamin that day. All these were men who drew the sword.

36 So the people of Benjamin saw that they were defeated. The men of Israel gave ground to Benjamin, because they trusted the men in ambush whom they had set against Gibeah.

37 Then the men in ambush hurried and rushed against Gibeah; the men in ambush moved out and struck all the city with the edge of the sword.

38 Now the appointed signal between the men of Israel and the men in the main ambush was that when they made a great cloud of smoke rise up out of the city

39 the men of Israel should turn in battle. Now Benjamin had begun to strike and kill about thirty men of Israel. They said, "Surely they are defeated before us, as in the first battle."

40 But when the signal began to rise out of the city in a column of smoke, the Benjaminites looked behind them, and behold, the whole of the city went up in smoke to heaven.

41 Then the men of Israel turned, and the men of Benjamin were dismayed, for they saw that disaster was close upon them.

42 Therefore they turned their backs before the men of Israel in the direction of the wilderness, but the battle overtook them. And those who came out of the cities were destroying them in their midst.

43 Surrounding the Benjaminites, they pursued them and trod them down from Nohah as far as opposite Gibeah on the east.

44 Eighteen thousand men of Benjamin fell, all of them men of valor.

45 And they turned and fled toward the wilderness to the rock of Rimmon. Five thousand men of them were cut down in the highways. And they were pursued hard to Gidom, and 2,000 men of them were struck down.

46 So all who fell that day of Benjamin were 25,000 men who drew the sword, all of them men of valor.

47 But 600 men turned and fled toward the wilderness to the rock of Rimmon and remained at the rock of Rimmon four months.

48 And the men of Israel turned back against the people of Benjamin and struck them with the edge of the sword, the city, men and beasts and all that they found. And all the towns that they found they set on fir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전쟁을 선포하기 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7절)

What did the Israelite community do before declaring war? (v. 7)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무엇을 물었나요? (18절)

What did they ask of God before they began the war against the tribe of Benjamin? (v. 1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에임스사랑의교회, 이병훈(IA)
과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 조항백(IA)
목회자를 위한 기도

용사들을 잃는 전쟁

A War of Losing Warriors

용사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바칩니다. 전쟁을 누가 시작했는지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묻지 않습니다. 전쟁을 통해 무언가를 얻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 보입니다. 믿음의 용사들을 더 이상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승리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미 시작한 전쟁에서 누가 먼저 죽는가를 묻기보다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 모르고 죽고 죽이는 일은 멈춰야 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특히 전쟁 중 가장 고통받는 아이들과 여성들을 볼 때마다 당장 멈춰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또 무디어집니다. 내가 전쟁에 참가하고 있다면,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전쟁 중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까요?

레위인에게서 시작된 화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급히 도망간 베냐민 지파 사람들 600명을 제외하고 공동체가 거의 사라질 위기까지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하시기 전까지 가만히 있는 힘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오늘날 믿음의 용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전쟁은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라면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Warriors give their lives. There is no questioning who started the war and for whom it is being fought. There seem to be people who gain something through war. The warriors of faith must no longer be lost. We must remember that our war belongs to God, and that the victory is not in us, but in God.

How important it is to ask the Lord's will first! Rather than asking who dies first in a war that has already begun, we should ask God's will for the war. Dying and killing without knowing what to fight for and for whom should stop. We hear the news of constant wars all over the world. Every time we pray for peace on earth, we ask God. Especially whenever I see the children and women who are suffering the most during the war, I pray for an immediate end. Then my concern becomes dull again. If I am at war, if my country is at war, will my prayers be different?

The anger, which began with a Levite, led to the civil war of the Israeli community. With the exception of the 600 people of the tribe of Benjamin who fled, the community was on the verge of almost disappearing. The sooner you ask God's will, the better. But we must also have the power to remain still until God answers. Was it God's will for the tribe of Benjamin to disappear? Today, God who calls the warriors of faith asks us what kind of war we really need to fight. If it is a battle in a community, we will need to seek God's wisdom and will.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연덕으로



23

2023 FEB
목요일 • Thu

왕이 없었다

There Was
No King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들에게 길르앗 여자들을 주게 됩니다. 실로의 여인들을 강제로 데려가는 것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묵인합니다.

🎵 새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목성본문

통독본문

사사기 21:16-25

사사기 21장

16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하고

17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 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18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라 하니라

19 또 이르되 보라 벤엘 북쪽 르보나 남쪽 벤엘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와 명절이 있도다 하고

20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21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여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22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며

23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여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24 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 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25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Reading Insight

The women of Gilead were given to the remnant of the tribe of Benjamin. Israel's leaders condone the forced taking of the women of Shiloh.

🎵 Jesus, We Enthroned You

Meditation

Reading Plan

Judges 21:16-25

Judges 21

16 Then the elders of the congregation said, “What shall we do for wives for those who are left, since the women are destroyed out of Benjamin?”

17 And they said, “There must be an inheritance for the survivors of Benjamin, that a tribe not be blotted out from Israel.

18 Yet we cannot give them wives from our daughters.” For the people of Israel had sworn, “Cursed be he who gives a wife to Benjamin.”

19 So they said, “Behold, there is the yearly feast of the LORD at Shiloh, which is north of Bethel, on the east of the highway that goes up from Bethel to Shechem, and south of Lebonah.”

20 And they commanded the people of Benjamin, saying, “Go and lie in ambush in the vineyards

21 and watch. If the daughters of Shiloh come out to dance in the dances, then come out of the vineyards and snatch each man his wife from the daughters of Shiloh, and go to the land of Benjamin.

22 And when their fathers or their brothers come to complain to us, we will say to them, ‘Grant them graciously to us, because we did not take for each man of them his wife in battle, neither did you give them to them, else you would now be guilty.’”

23 And the people of Benjamin did so and took their wives, according to their number, from the dancers whom they carried off. Then they went and returned to their inheritance and rebuilt the towns and lived in them.

24 And the people of Israel departed from there at that time, every man to his tribe and family, and they went out from there every man to his inheritance.

25 In those days there was no king in Israel.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실로의 여인들을 납치하다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와서 따지면 뭐라고 답하라고 했나요? (22절)

When they kidnapped the women of Shiloh, what did the leaders say to the womens' fathers or brothers when they objected? (v. 22)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다고 기록하며 사기를 끝맺고 있나요? (25절)

What was the final statement in the Book of the Judges about how people behaved in the era without kings? (v. 25)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As Their Own Way

왕이 없는 공동체로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는데 다 자신이 왕이라 생각했던 사사 시대의 결말은 누구도 이렇게 마칠 거라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가닥 희망이었던 레위 사람은 물론 회중의 장로들, 종교지도자들조차도 내놓는다는 묘책이 여인들이 춤출 때 몰래 납치하라는 것이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삶을 드리겠다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고 고백한 나입니다. 사사들의 이야기와 레위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을 보며 나를 돌아봅니다. 왕이 없는 나라에 사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나를 돌아봅니다. 영웅담으로만 기억하기 쉬운 사사기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참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똑똑한 척하고 다 아는 척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공동체와 이웃들을 바른길로 인도하기는커녕 나조차 그릇된 길에 서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과 내일의 역사는 우리가 써가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봅시다.

The Book of the Judges concludes with a statement about a community without a king. In the absence of a king when everyone thought they were kings, no one would have expected the end of the Judges' Age like this. There is nothing more to say for those who were a strand of hope like the Levites, the elders of the community and even the religious leaders to allow those men to secretly kidnap the women of Shiloh when they danced.

I am the one who confessed that I would first seek the kingdom and righteousness of God to give my life in the worship of God. I look back on myself as I remember the stories of the judges and the corruption and sinfulness of the Levitical priests. I look back on myself as if I lived in a country without a king, acting as I pleased, and judging by what I thought. The Book of Judges, which could have been remembered as the stories of heroes, is my story, not the stories of the heroes. I feel so ashamed and sorry. It reminds me of those times when I pretended to be smart, pretended to know everything, and didn't ask God's will.

While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sent Jesus Christ, not only are we far from leading our communities and neighbors on the right path, but even I stood on the wrong path. My dear sisters and brothers, it is us who are writing the history of today and tomorrow.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let us look to Jesus as our King to the end.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갈릴리연합감리교회, 엄모성(ILL)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 김윤기(ILL)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연대로



24

2023 FEB
금요일 • Fri

어머니의 하나님

Mother's Go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나오미와 룯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룯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 새458장(통513장)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묵상본문

통독본문

룯기 1:6-17

룯기 1장

6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8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9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10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11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12 내 딸들아 되돌아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 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단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3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와 그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14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룯은 그를 붙좃았더라

15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 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Reading Insight

The story of Naomi and Ruth is beginning. Ruth refused to stay in Moab and followed her mother-in-law to Bethlehem.

🎵 Tho' Your Heart May Be Heavy

Meditation

Reading Plan

Ruth 1:6-17

Ruth 1

6 Then she arose with her daughters-in-law to return from the country of Moab, for she had heard in the fields of Moab that the LORD had visited his people and given them food.

7 So she set out from the place where she was with her two daughters-in-law, and they went on the way to return to the land of Judah.

8 But Naomi said to her two daughters-in-law, "Go, return each of you to her mother's house. May the LORD deal kindly with you, as you have dealt with the dead and with me.

9 The LORD grant that you may find rest, each of you in the house of her husband!" Then she kissed them, and they lifted up their voices and wept.

10 And they said to her, "No, we will return with you to your people."

11 But Naomi said, "Turn back, my daughters; why will you go with me? Have I yet sons in my womb that they may become your husbands?

12 Turn back, my daughters; go your way, for I am too old to have a husband. If I should say I have hope, even if I should have a husband this night and should bear sons,

13 would you therefore wait till they were grown? Would you therefore refrain from marrying? No, my daughters, for it is exceedingly bitter to me for your sake that the hand of the LORD has gone out against me."

14 Then they lifted up their voices and wept again. And Orpah kissed her mother-in-law, but Ruth clung to her.

15 And she said, "See, your sister-in-law has gone back to her people and to her gods; return after your sister-in-law."

16 But Ruth said, "Do not urge me to leave you or to return from following you. For where you go I will go, and where you lodge I will lodge. Your people shall be my people, and your God my God.

17 Where you die I will die, and there will I be buried. May the LORD do so to me and more also if anything but death parts me from you."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나오미는 자신을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르라고 하나요? (20절)

What name did Naomi tell people to call her instead of calling her Naomi? (v. 20)

나오미와 룯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는 어느 때였나요? (22절)

What season did Naomi and Ruth arrive in Bethlehem? (v. 22)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영원한 친구

Friends Forever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은 나오미... 그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입니다. 베들레헬을 떠날 때 가득 찬 채로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그의 곁에 룯이 있었습니다.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나오미는 베들레헬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 시대 과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과 차별을 당해야 하는지 잘 알았던 나오미는 딸들처럼 사랑하는 두 며느리를 축복하며 떠나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룰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게 어머니를 떠나라, 집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죽음조차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룰 1:16-17 메시지성경)

이 고백을 들으며 결혼 서약할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 놓아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서약했던 고백 말입니다. 룯 이름의 뜻은 “친구”입니다. 룯과 나오미 두 사람의 서로를 향한 사랑은 요즘 시대 가볍게 쓰이는 ‘사랑’이란 단어에 무게와 진한 감동을 더해 줍니다. 당신의 영원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Naomi lost her husband and two sons. Her name meant “pleasant.” She lamented that she went away full, but she was brought back empty. After losing her husband and sons, Naomi planned to return to Bethlehem.

Naomi told her two daughters-in-laws to go back to their parents and start a new life. She didn’t want them to live as widows and suffer with poverty. It was her way of blessing and protecting them. But Ruth replied, “Don’t force me to leave you; don’t make me go home. Where you go, I go; and where you live, I’ll live. Your people are my people, your God is my god; where you die, I’ll die, and that’s where I’ll be buried, so help me God—not even death itself is going to come between us! (vv. 16-17)”

Ruth’s words remind me of the wedding vows of “until death do us apart.” Ruth means “friend.” Ruth’s love for her mother-in-law is much deeper than the “love” people casually express. Who is your forever friend?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 최기환(IL)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정일(IL)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기쁨의 연덕으로



25

2023 FEB
토요일 • Sat

한결같은 자비

Steadfast Mercy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룻은 밭에 이삭을 주으러 나가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룻을 돕습니다.

🎵 새393장(통447장) 오 신실하신 주

독서본문

통독본문

룻기 2:1-13

룻기 2장

- 1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 2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 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같지어다 하매
- 3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 4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 5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 6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 7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 8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들으라 이삭을 주우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 9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룻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 10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 11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 12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려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 13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 다 하니라

Reading Insight

Ruth met Boaz when she went to glean at the harvest field. Boaz made sure Ruth could glean safely from his fields.

Great Is Thy Faithfulness

Meditation

Reading Plan

Ruth 2:1-13

Ruth 2

1 Now Naomi had a relative of her husband's, a worthy man of the clan of Elimelech, whose name was Boaz.

2 And Ruth the Moabite said to Naomi, "Let me go to the field and glean among the ears of grain after him in whose sight I shall find favor." And she said to her, "Go, my daughter."

3 So she set out and went and gleaned in the field after the reapers, and she happened to come to the part of the field belonging to Boaz, who was of the clan of Elimelech.

4 And behold, Boaz came from Bethlehem. And he said to the reapers, "The LORD be with you!" And they answered, "The LORD bless you."

5 Then Boaz said to his young man who was in charge of the reapers, "Whose young woman is this?"

6 And the servant who was in charge of the reapers answered, "She is the young Moabite woman, who came back with Naomi from the country of Moab.

7 She said, 'Please let me glean and gather among the sheaves after the reapers.' So she came, and she has continued from early morning until now, except for a short rest."

8 Then Boaz said to Ruth, "Now, listen, my daughter, do not go to glean in another field or leave this one, but keep close to my young women.

9 Let your eyes be on the field that they are reaping, and go after them. Have I not charged the young men not to touch you? And when you are thirsty, go to the vessels and drink what the young men have drawn."

10 Then she fell on her face, bowing to the ground, and said to him, "Why have I found favor in your eyes, that you should take notice of me, since I am a foreigner?"

11 But Boaz answered her, "All that you have done for your mother-in-law since the death of your husband has been fully told to me, and how you left your father and mother and your native land and came to a people that you did not know before.

12 The LORD repay you for what you have done, and a full reward be given you by the LORD, the God of Israel, under whose wings you have come to take refuge!"

13 Then she said,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my lord, for you have comforted me and spoken kindly to your servant, though I am not one of your servant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롯은 밭으로 나가서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간 곳은 누구의 밭이었나요? (3절)
Ruth went to a harvest field to glean. Whose field did she end up going to? (v. 3)

보아스는 롯이 한 일을 누가 갚아 준다고 대답하고 있나요? (12절)
Who did Boaz say will reward Ruth for her faithfulness? (v. 12)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비전교회, 우민혁(IL)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 김태준(IL)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날개 밑 Beneath the Wings of God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는지요. 어떤 때에는 부끄러워 하늘을 쳐다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보아스를 만나 롯은 자신에게 잘해주는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이 구절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잘 해 주시는지 묻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를 보니 참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멘트도 주옥같습니다. “그대가 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요. 그대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자 왔으니, 그분께서 그대에게 후히 갚아 주실 것이요.” (12절) 보아스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강한 힘과 재력으로 롯을 성심껏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 베들레헴으로 온 나오미와 롯의 일용할 양식을 놀랍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오미와 롯이 도착한 때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1장 마지막 절이 아직도 맘에 올립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때를 허락하셨고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준비하셔서 롯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또한 우리에게 한결같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How could our God be so good to someone like me? Often, God's goodness overwhelms me. How about you? Ruth is overwhelmed by Boaz's generosity and said, “How does this happen that you should pick me out and treat me so kindly—me, a foreigner?” This verse also makes me confess the same thing.

Boaz was an extraordinary person. His words are inspiring. “God reward you well for what you've done—and with a generous bonus besides from God, to whom you've come seeking protection under his wings” (v. 12). Boaz wasn't a man of just words but he was a generous man. God provided abundant and remarkable provisions to Naomi and Ruth through Boaz. The last verse in chapter 1 is heartwarming. “They arrived in Bethlehem at the beginning of the barley harvest.” God's timing was good. God led Ruth to Boaz's field and Boaz was able to see Ruth. God allows His mercy to us just as He did to Ruth.

May you also see and be led by the guidance of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26

주일 말씀 요약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Sunday Sermon Not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기쁘고 떳떳하게

이창민 목사 (LA 연합감리교회, CA)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프랑스 출신의 가톨릭 선교사 한 사람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 땅을 찾았습니다. 전쟁으로 망가진 참혹한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한국에 온 26살의 젊은 선교사는 파리 외방 선교회 소속 “뒤퐁(Dupont)” 신부였습니다.

뒤퐁 신부는 앞으로 자신이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섬겨야 할 나라인 한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 자신의 프랑스 이름인 ‘뒤퐁’을 버리고 ‘두봉’이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두봉 신부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 이름은 두봉입니다. 두견새 할 때 두(杜) 자에 봉우리 할 때 봉(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산봉우리에서 우는 두견새죠.”

얼마 전 한 TV 방송에 나온 두봉 신부는 ‘산봉우리에서 우는 두견새’라는 자신의 이름처럼 약간은 과장된 몸짓에 크고 높은 소리를 곁들인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 직후의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에 오는 것이 두렵지 않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이 이왕이면 어려운 나라로 가고 싶어 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죠. 그때 한국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 중에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입을 것도 없었어요. 그런 나라로 발령받았다는 것을 너무 고맙게 생각했어요. 아주 무척 고맙게 생각했어요.”

26살에 한국에 온 그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땅에 68년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가 걸어 온 삶의 발자취는 현대사와 궤적을 같이했습니다. 열 살 때 발발한 세계 제2차 대전을 겪었고,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친구가 전사하는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톨릭 안동 교구의 초대 교구장으로 섬기는 동안에는 상지여자전문학교와 상지여자중학교를 설립했고, 농민 운동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도 설립했습니다.

그런 공로를 인정한 프랑스 정부는 그에게 나폴레옹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레지옹 도뇌르 훈장”이라고 불리는 나폴레옹 훈장은 영예로운 삶을 산 사람에게 주는 프랑스 최고 훈장입니다.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추켜세우는 진행자를 향해 그는 다른 것은 다 자랑할만한 것이 못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자신이 내세울 것이 있다면 기쁘고 떳떳하게 살았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쁘고 떳떳하게’ 살았다는 고백 앞에 진행자도 잠시 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제 마음도 뜨끔했습니다. “기쁘고 떳떳하게 살았어요!”라는 두봉 신부의 고백은 세상을 향해 ‘당신은 기쁘고 떳떳하게 살고 있습니까?’라는 날카로운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곧 ‘그럼, 어떻게 해야 기쁘고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까?’라는 또 다른 물음을 낳았습니다.

그 답은 그가 머무는 조그만 집 거실에 붙어 있는 액자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톨릭 안동 교구의 사명선언문이자 두봉 신부가 평생토록 간직하는 좌우명인 ‘기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액자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터에서 / 열린 마음으로 / 소박하게 살고 /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 서로 나누고 섬김으로써 / 기쁨이 넘치는 /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기쁘고 떳떳하게 사는 삶은 많은 것을 이루어야 누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종교적 열심과 도덕적 완벽성을 추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삶도 아닙니다.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소박한 정을 서로 나누고 살 때 누릴 수 있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두봉 신부에 관한 기사도 뒤적거리고, 여러 방송에 나온 그의 인터뷰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두봉 신부가 고국을 떠나 한국에 온 26살에 나는 무엇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26살에 고국을 떠나 미국으로 유학 왔습니다. 두봉 신부가 낯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산 세월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저도 고국을 떠나 미국에 산 지 30년째를 맞으면서 ‘기쁘고 떳떳하게’ 살았는지를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자신 있게 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쁘고 떳떳하게 살려고 애쓰며 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이민자가 저와 같이 답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쁘고 떳떳하게 살았다고 할 자신이 없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기쁘고 떳떳하게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 기쁘고 떳떳한 인생으로 기억될 오늘을 멋지게 살아갑시다!

27

2023 FEB
월요일 • Mon

고엘의 전통

Kinsman
Redeemer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룻이 보아스와 가까이 집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계획대로 했
지만 보아스는 고엘의 전통을 먼저 지킵니다.

🎵 새543장(통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묵상본문

통독본문

룻기 3:6-15

룻기 3장

6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
니라**7**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
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
고 거기 누웠더라**8**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
에 누워 있는지라**9**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
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무를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10**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
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
니 네가 베풀은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11**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
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12**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무를 자이나 기업 무를 자로서 나보
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13**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무를 자의 책
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무를 자의 책
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
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14**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
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15**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겹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
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룻에게 지
워 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Reading Insight

Ruth gets to know Boaz. Ruth obeys Naomi's plan and Boaz was pleased with Ruth. But first Boaz wanted to honor the custom of "kinsman redeemer."

Simply Trusting Every Day

Meditation

Reading Plan

Ruth 3:6-15

Ruth 3

6 So she went down to the threshing floor and did just as her mother-in-law had commanded her.

7 And when Boaz had eaten and drunk, and his heart was merry, he went to lie down at the end of the heap of grain. Then she came softly and uncovered his feet and lay down.

8 At midnight the man was startled and turned over, and behold, a woman lay at his feet!

9 He said, "Who are you?" And she answered, "I am Ruth, your servant. Spread your wings over your servant, for you are a redeemer."

10 And he said, "May you be blessed by the LORD, my daughter. You have made this last kindness greater than the first in that you have not gone after young men, whether poor or rich.

11 And now, my daughter, do not fear. I will do for you all that you ask, for all my fellow townsmen know that you are a worthy woman.

12 And now it is true that I am a redeemer. Yet there is a redeemer nearer than I.

13 Remain tonight, and in the morning, if he will redeem you, good; let him do it. But if he is not willing to redeem you, then, as the LORD lives, I will redeem you. Lie down until the morning."

14 So she lay at his feet until the morning, but arose before one could recognize another. And he said, "Let it not be known that the woman came to the threshing floor."

15 And he said, "Bring the garment you are wearing and hold it out." So she held it, and he measured out six measures of barley and put it on her. Then she went into the city.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나오미는 룯과 보아스가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나요? (1-4절)

What plan does Naomi come up with to have Ruth marry Boaz? (vv. 1-4)

보아스가 룯과 한 약속은 어떤 내용인가요? (12-13절)

What was Boaz's promise to Ruth? (vv. 12-1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불잡습니다.

약속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Promise Can't Be Greedy

고엘은 서로에게 구원자가 되어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통입니다. 가까운 순서로 정해지는데 첫째는 제일 가까운 형제이고 형제가 없을 때에는 그 가족이 속한 가문에서 정해집니다. 계산해 보니 보아스 보다 더 가까운 자가 한 명 있었던 것입니다. 고엘은 가문을 지키고 이어가기 위해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는 장치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고 살았던 것인데 보아스가 언약에 따라 그 전통을 지킵니다. 룯이 당황스럽지 않도록 잘 설명해 줍니다. 만약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자기 권리와 책임을 다한다고 하면 그에게 기회가 갈 것이고 그가 관심이 없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자신이 룯을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것이 먼저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함없이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약속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만약 보아스가 계산에 빠른 사람이었다면 룯과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얻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부를 가졌고 부족함 없었던 그는 룯과 결혼하면 얻는 것은 보이지 않고 힘도 돈도 오히려 낭비한다는 계산이 현실적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잃어버린 시대에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Kinsman Redeemer" was the Hebrew custom meant to rescue the helpless. The order of the redeemer goes by the birth order and if there are no brothers left, it falls to the closest relative. Boaz knew there was a closer redeemer than him. Kinsman redeemer was the covenant that ensured protection and vindication. Boaz honored the custom and kindly explained it to Ruth. He promised Ruth that if the other kinsman doesn't take his right, he will marry Ruth. Being honest with God comes first.

We have to live with that conviction all the time. Righteous people receive God's promise. We have to keep our promise with God and that's the way we should live.

If Boaz was a greedy man, he probably wouldn't choose Ruth. He had nothing to gain from her. He already had wealth and lacked nothing. If he was all about money, he would not see what he would gain, and would have thought that he was wasting energy and money. Boaz was doing his best to keep his promise in order to fulfill that duty in a time when God-given duty was lost.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샘물연합감리교회, 박미숙(IL)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 조선희(IL)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연덕으로



28

2023 FEB
화요일 • Tue

사랑 중에 사랑

Best lov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룻이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 낳은 아들은 오벧입니다.

🎵 새91장(통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묵상본문

룻기 4:13-22

통독본문

룻기 4장

13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므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4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16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벧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18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19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20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21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벧을 낳았고

22 오벧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Reading Insight

Ruth and Boaz married and Ruth gave birth to Obed.

Take the Name of Jesus with You

Meditation

Reading Plan

Ruth 4:13-22

Ruth 4

13 So Boaz took Ruth, and she became his wife. And he went in to her, and the LORD gave her conception, and she bore a son.

14 Then the women said to Naomi, “Blessed be the LORD, who has not left you this day without a redeemer, and may his name be renowned in Israel!”

15 He shall be to you a restorer of life and a nourisher of your old age, for your daughter-in-law who loves you, who is more to you than seven sons, has given birth to him.”

16 Then Naomi took the child and laid him on her lap and became his nurse.

17 And the women of the neighborhood gave him a name, saying, “A son has been born to Naomi.” They named him Obed. He was the father of Jesse, the father of David.

18 Now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Perez: Perez fathered Hezron,

19 Hezron fathered Ram, Ram fathered Amminadab,

20 Amminadab fathered Nahshon, Nahshon fathered Salmon,

21 Salmon fathered Boaz, Boaz fathered Obed,

22 Obed fathered Jesse, and Jesse fathered Davi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고엘의 의무를 다해야 할 가장 가까운 친척은 왜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를 그 다음 가까운 보아스에게 넘겼나요?(5-6절)

Why did Ruth's kinsman give up his right and pass it to Boaz? (vv. 5-6)

오벧은 누구인가요? (17절)
Who is Obed? (v. 17)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생각지 못한 주인공

The Unexpected Protagonist

룻을 보면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룻과 같은 사랑 중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랑 중에 사랑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겠지요.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랑의 행함과 사랑의 모습 가운데 룻이 보여준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룻의 삶을 전혀 다른 주인공으로 만드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오벳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종”입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게 됩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사사 시대가 끝나고 다시 하나님의 종, 오벳을 다시 세우십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룻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의지할 데 없는 무명의 한 ‘이방인’ 과부 여인이 다름 아닌 다윗의 증조모요 예수님의 조상이었다는 이 절묘한 이야기. 그래서 룻기는 대수롭지 않은 평범한 인물도 하나님 이야기의 완결을 위해 결코 빠질 수 없는 등장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준다.”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귀한 종입니다. 앞으로 쓰여질 이야기의 주인공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에 맡겨진 일이 크든 작든 남이 알아주든 말든 소중한 일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역할을 이 시대의 주님의 종들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God rewarded Ruth for her genuine love and obedience towards her mother-in-law. God still fulfills His purpose through people like Ruth. God's love is above all love we can think of. Ruth's love was carried out in obedience to care for Naomi and God rewarded this family with Obed. The love Ruth exhibited makes her a completely different character.

Obed is the son of Boaz and Ruth. Obed means “servant.” God uses servants to call back his people to live under God's covenant. The time of judges is almost ending and God uses his servant, Obed.

Eugene Peterson records Ruth's story in this manner. “This is an exquisite story of an unknown, helpless, ‘gentile’ widow who was none other than David's great-grandmother and the forefather of Jesus. So, the book of Ruth imprints on us the fact that even an insignificant ordinary person is an indispensable character for the conclusion of God's story.” That's right. I am and all of you are precious and valuable servants before God.

Please do not forget that you are the protagonist of the story to be written. Please don't forget that the work entrusted to each of us is a precious task, whether big or small, recognized by others or not. The God who is with you will entrust an unexpected role to the servants of the Lord in this age.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김광태(IL)
울랜드팍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이동근(IL)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연대로



하루 \$1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

\$ 1 for every day, we are planting the church of Jesus Christ!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개척 운동 Nehemiah Project-Church Planting Movement
느헤미야 \$ 1 운동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교회를 세웁니다 We plant a church at a time
미래를 준비합니다 We prepare for future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God is leading our way

온라인 헌금 Online Giving

□한달 \$ 10, \$ 20, \$ 30, \$ 50 per month □하루 \$ 1 per day □한달 \$ 30 per month

여러분의 1불 헌금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척을 위해 사용됩니다.

Your \$ 1 offering will be used for church planting projects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Your offering will support for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한어회중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 영어회중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 차세대회중 Next generation ministry
- 다인종사역 Multi-ethnic ministry

느헤미야 운동의 교회개척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participate into church planting projects for Nehemiah project?

- 가정에서 함께 드립니다. You may give as a family.
- 자녀들과 함께 매달 드립니다. You may share with your children.
- 신용카드로 헌금합니다. You would give with your credit card.
-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 비과세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his gift can be listed as a tax-deductible gift for your tax report.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Check payable to Nehemiah Project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본부 Nehemiah Project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Email contact : kumcdevotion@gmail.com

소그룹 교재

2023
02

-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반복되는 죄



새268장(통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새421장(통210장) 내가 예수 믿고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여는 질문

내 삶에서 알면서도 잘 바뀌지 않고 반복되는 좋지 않은 습관이나 행동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본문 이해

창세기 19장은 모압과 암몬의 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의 두 딸이 늙은 아버지와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들은 혈통으로 보면 이방인이거나 보다는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모압과 암몬은 이방인이라고 보고 생각합니다. 쉽게 구분 짓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은 우리와 같은 종족이 아니면 이방인이라 취급합니다. 나와 다르면 이방인이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방인은 인종의 구분이 아닌 신앙이 같고 다름을 통해 나뉘는 것을 봅니다.

나와 다르면 금방 혐오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외모로 쉽게 사람을 판단하는 반복하는 잘못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에훗을 왼손잡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 번역가들은 “두 손이 모두 오른손인 사람”, “두 손을 모두 오른손처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양손잡이”로 이해했다는 것을 봅니다. 나에게 주어진 두 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때 우리는 양손잡이라 부릅니다. 밥 먹을 때 유리하다고 하지요. 그런데 밥 먹을 때 뿐 아니라 왼손 잡이든 오른손 잡이든 주어진 두 손을 함께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타자를 칠 때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균형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균형은 에훗의 이름처럼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를 아는 균형을 말합니다. 진영논리도

아니고 보수와 진보의 싸움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의 양손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마주 서서 손을 잡으면 내 오른손이 상대의 왼손을 잡게 됩니다. 우리 서로 손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에훗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반복하고 있는 표현은 무엇인가요?(12절)

삶 속으로

- 고치고 싶지만 여전히 반복하는 습관이나 잘못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반대로 반복하던 습관 혹은 잘못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고쳐졌을 때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암송 구절 | 사사기 3:15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자녀와 나눔

아이들에게 주신 양 손을 가지고 오른손으로 하는 일, 왼손으로 하는 일, 또한 양손하는 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지도자가 치러야 할 대가



새516장(통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새212장(통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예수 우리 왕이여

여는 질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본문 이해

이익상 목사님의 ‘내가 왕이었습시다’ 책에 보면 중세 랍비 라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무비유를 해석한 내용이 나옵니다.

라쉬는 감람나무가 첫 번째 사사 웃니엘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11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감람나무를 유다에 비유하고 유다 지파 출신 사사가 웃니엘이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사사 드보라를 비유합니다. 라쉬는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단 꿀이라 이해하고 드보라의 뜻이 꿀벌이기에 드보라를 비유한다고 합니다. 포도나무는 사사 기드온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익상 목사님의 해석이 참 확 다가옵니다.

“웃니엘이 왕이 되려 했는가? 그는 갈렙의 사위이면서 유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문의 배경이었지만 왕이 되려 하지 않았다. 그가 할 일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스스로 영화로운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드보라를 보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 꿀벌처럼 작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해냈던 드보라는 왕이 되려 하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에. 네 아버지 기드온을 보라! 비록 그의 말년은 너무 많은 소유 때문에 하나님이 왕 되심을 잊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가 가진 신앙의 전통 때문에 스스로 왕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제 너는 스스로 왕이 되어 너보다 더 찬란한 백향목 같은 이스라엘을 불살라 없애려고 하느냐?”

이 나무 비유는 오늘날 너무 많은 지도자들의 모습이라 새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만큼은 어

떤 지도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인지는 최소한 알아야 합니다. 요담의 외침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외침을 듣기 원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물론 이 시대 각 분야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스스로 왕이 되려 하기 보다 왕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 지도자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 속으로

- 아비멜렉이 치른 죄의 대가는 무엇인가요?(50-57절)

삶 속으로

-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유익을 이루기 위한 마음이 더 컸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 내가 닦고 싶은 나무는 나무 비유 중에 어떤 나무인가요?

암송 구절 | 사사기 9:15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녀와 나눔

아이들이 닦고 싶은 스타나 리더가 있다면 누군지 나눠봅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보아요.

사명을 재확인 하라



새347장(통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새435장(통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모든 상황속에서



여는 질문

여러분은 살 집(땅)을 정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본문 이해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과 길을 계속 물었을 것입니다. 왕이 없는 불안정함 속에서, 리더의 부재 속에서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도자가 없을 때 오늘 말씀은 사명을 잃어버린 단 지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 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그 시대는 쉽게 이사하고 쉽게 교회를 정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더 혼란스럽고 어려워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10절에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 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보았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땅을 다시 확인하라’ 보다 ‘사명을 재확인 하라’로 제목을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가치와 기준과 소망을 둘 것인지 하늘에 둘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달라는 달콤한 거짓 제안에도 넘어가는 종교지도자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한 사람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낫냐고 묻습니다.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따지다가 정말 중요한 가장 소중한 것, 아름다운 것을 놓치는 삶을 살지 않기 바랍니다. 제사장들마저도 돈과 힘을 쫓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것을 봅니다. 우리

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한 주도 허락하신 교회와 믿음의 유업을 잘 이어가는 신실한 사람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으로

- 미가가 위협을 듣고 그의 발길을 돌려 돌아간 이유는 무엇인가요?(26절)

삶 속으로

-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암송 구절 | 사사기 18:1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 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 때까지 기업을 분배 받지 못하였음이라

자녀와 나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주민의 삶



새436장(통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새93장(통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여는 질문

미국을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이민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혹시 미국에 이민와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요?

본문 이해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 둘이 죽고 홀로 남게 됩니다. 어두운 시대에 빛처럼 룯기는 사사 시대의 희망과 같이 등장합니다. 룯기 4장 17절은 성경에서 다윗의 이름이 처음 언급된 곳이기도 합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그 이유와 상황이 어찌했던 기대와 소망을 갖고 떠났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다릅니다. 나오미와 룯이 보여준 이주의 여정은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먹고 살기 위해 떠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이방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잠깐 머물려 했는데 아들들이 결혼할 때까지 꽤 오랜 시간 체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부이자 이방인이었던 룯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쉽게 지나치기 쉬운 이주자들, 이민자들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 낯선 이방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한국에서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는데 미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 말입니다.

특히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살아가는 미국에서 이민자인 우리가 이민역사가 길던 짧은 40년 전에 왔던 어제 왔던 교회에서 '우리'라 부를 수 있는 하나됨의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알듯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수록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이민자들과도 함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일에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왜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살았나요?(1절)

삶 속으로

- 다른 인종,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느끼는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반대로 다른 인종, 문화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느낀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암송 구절 | 룻기 4:17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벧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녀와 나눔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이민자의 자녀로 살면서 피부색이 다르다고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고 친구들에게나 학교에서 혹시 당한 어려움이 있었나요?

Recurring Sins



Would You Be Free from Your Burden of Sin
Everything Is Changed
Create in Me a Clean Heart



Opening Discussion

What would it be like if there were any bad habits or behaviors in my life that I was aware of, did not change for the better and repeated?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Genesis 19 records the origin of Moab and Ammon. The sons of Lot's two daughters who cohabited with their old father are Moab and Ammon. In terms of lineage, they become the children of Israel rather than Gentiles. As we read the Bible, we see and think that Moab and Ammon were Gentiles. Those of us who like to make easy distinctions are treated as strangers unless they are of the same race as us. If you're different from me, you're a stranger. In the Bible, however, Gentiles are distinguished not by the division of race but by whether they have the same faith or not.

We, who live in a world where we easily hate those who are different from us, must be careful. God also said that He sees the heart, not the appearance of man. Those of us who live in the United States should not make the repeated mistake of judging people easily by their appearance. That is why it is essential to have eyes that can see from God's perspective.

Today's reading records Ehud as left-handed. Whether you are right-handed or left-handed is not important, but in the Greek translation of the Hebrew Old Testament, we see that translators understood him as "a man whose hands are both right hands" and "ambidextrous who freely uses both hands as if they were right hands."

When I use both of my hands freely that is being ambidextrous. It's said to be advantageous when eating. However, there are times when you use two hands together, not only when you are eating, but also when you hold your left or right hand. It's time to type. Let us consider that our stories must not be out of balance.

The balance here is, as Ehud names it, "From whom does power come from?" Knowing balance. It is not factional logic, nor is it a fight between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We will have to use both hands for the glory of God. When I stand face to face with someone and hold their hands, my right hand grabs the other person's left hand. We should join hands with one another and work harder to do what pleases God.



Into the Word

- What is the phrase that the historian who wrote Judges is repeating as he begins the story of Ehud? (v. 12)



Into our life

- What is a bad habit or fault that you repeat but want to change?
- Conversely, what changed in your life when you corrected a mistake or stopped repeating a bad habit?



Memory Verse | Judges 3:15

Then the people of Israel cried out to the Lord, and the Lord raised up for them a deliverer, Ehud, the son of Gera, the Benjaminite, a left-handed man. The people of Israel sent tribute by him to Eglon the king of Moab.



Sharing with your children

Discuss with your children what they do with their right hand, what they do with their left hand, and what they do with both hands.

The Price a Leader Has to Pay



We've a Story to Tell to the Nations
O Master, Let Me Walk with Thee
Jesus, We Enthroned You



Opening Discussion

What kind of leader do you expect in this day and age in which we live?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Did Othniel try to be king? He was Caleb's son-in-law and the backdrop of a family that could influence not only Judah but also Israel, but he did not want to be king. This is because his job was to glorify God and man, not to ascend to a position of self-glorification. Look at Deborah! Deborah, the general who led the war to victory, who was as small as a bee but who was with God and who did such a wonderful and great thing, did not want to be king. Because all of this is done by God. Look at your father, Gideon! Although his later years of possessions caused him to forget that God was King, he did not call himself king because of his faith traditions. But now do you want to become king yourself and burn down Israel, like a cedar that is more brilliant than you?

This parable of the tree is not new because it is the image of so many leaders today. But as much as we do, we should at least know which kind of leader is pleasing to God. May we hear our cry today in the cry of Jotham. I pray that the leaders of the Church, as well as the leaders of all disciplines of our day, will be leaders who glorify God as King and praise God for what He has done, rather than trying to be kings themselves.

Into the Word

- What is the penalty for Abimelech's sins? (vv. 50–57)

Into our life

- If you have an experience in which doing God's work has made you feel more inclined to accomplish your own goals, let's share it.
- Which tree do I want to resemble in the tree parable?

Memory Verse | Judges 9:15

And the bramble said to the trees, "If in good faith you are anointing me king over you, then come and take refuge in my shade, but if not, let fire come out of the bramble and devour the cedars of Lebanon."

Sharing with your children

If there's a star or leader that kids want to look like, ask them to share who it is and why.

Reaffirm Your Call



We Are Bound for Canaan Land
Thou, My Everlasting Portion
In All Circumstances



Opening Discussion

What do you consider most when you buy a house or a piece of land?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is is the time Israel didn't yet have kings. The Israelites have been uncertain about their future. Today's scripture shows the tribe of Dan was looking for a place to settle. Verse 1 says,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And in those days the tribe of the Danites was seeking a place of their own where they might settle." During that era, moving or finding the right property wasn't easy. Finding or following the call became more difficult for this generation.

Verse 10 says, "When you get there, you will find an unsuspecting people and a spacious land that God has put into your hands, a land that lacks nothing whatever."

With their own eyes, they saw the spacious land. However, they missed seeing what God had promised. They failed to claim the promise God was going to give them.

That's the reason I chose the title of today's devotion as "Re-evaluate your calling" instead of "Re-evaluate the land." We have to decide what we are going to choose. The hope in the world? Or the hope in God's kingdom?

I urge all of us not to pursue glamor or riches of the world because that will cost us losing the most valuable and beautiful things. The priest in this story was the false priest that only set his eyes on money and security. Regretfully, it seems pastors in our times are following the same suit. Let us reflect on the calling that God gave us. May you be

sustained with God's faithfulness to keep God's church and inheritance each and every day.

Into the Word

- What threat was made to Micah that made him retreat? (v. 26)

Into our life

- What call did God give to you to fulfill in the places of work, your home and church?

Memory Verse | Judges 18:1

In those days there was no king in Israel. And in those days the tribe of the people of Dan was seeking for itself an inheritance to dwell in, for until then no inheritance among the tribes of Israel had fallen to them.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at are the things our eyes can see and cannot see?

The Lives of Immigrants



Lately the Life of Christ Burst Out Alive in Me!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The Way Of Life, Lord Showed Us



Opening Discussion

America is called the land of immigrants. Tell us about your life as an immigrant. Have you wanted to return to your home country?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Elimelech and his family moved to Moab. Elimelech died. His wife Naomi also lost her two sons. The story of Ruth emerges as the bright light in the dark and brings hope. Ruth 4:17 is the first place in the Bible where the name of David is mentioned. When Naomi left her home country, regardless of their motives, they probably had great expectations and hope.

There was a great famine in Bethlehem. Suffering doesn't discriminate. Everyone experiences it. However, the attitude towards suffering is different for each person.

The migration journey of Naomi and Ruth was a journey that showed how God was with them during their despair and hardship, and how God filled their lives abundantly.

Naomi and her husband left home and moved to Moab to escape from the famine. Naomi's first son married a Moabite woman. Elimelech's family may have planned to stay for a few seasons, but they ended up staying longer and their sons married Moabite women. When Ruth moved to Bethlehem with her mother-in-law Ruth, she was a widow and a gentile. Her story is similar to us immigrants. Some of you did not attend church in Korea but when you came to America, you started to come to church and met Christ who changed your life.

In this country of immigrants, whether you came to the U.S. 40 years ago or yesterday, we should be the people who are fully experiencing love in our churches. Those who know the deep love of Christ can also love others. The longer we live in this country, the kinder we should become to treat and care for other immigrants so that they may also live in comfort and security.

Into the Word

- Why did Elimelech and Naomi leave their home country and go to Moab?

Into our life

- What are the dilemmas or difficulties when you socialize with people of different ethnicity or culture? What is the benefit or what makes you feel good when you are able to get along with other ethnicities or cultures?

Memory Verse | Ruth 4:17

And the women of the neighborhood gave him a name, saying, "A son has been born to Naomi." They named him Obed. He was the father of Jesse, the father of David.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at discrimination did you experience at school because of your skin color or how your look?

MISSIONARY OF THE MONTH

Sweet, Arabia Baynia



Country
United States

Serving At
**Bennettsville
[South Carolina]-
Cheraw Area
Cooperative
Ministry**

Home Country
**United States of
America**

Contact info
**asweet@
umcmision.
org**

Arabia Baynia Sweet is a church and community worker with the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erving as coordinator of program development for the Bennettsville [South Carolina]-Cheraw Area Cooperative Ministry.

A member of Bethel United Methodist Church, Atlanta, Arabia studied at three Atlanta institutions. She earned a Bachelor of Arts degree in political science from Spelman College, a Master of Arts in political science from Clark Atlanta University and a Master of Divinity from Emory University. She has served as a children's pastor, a worship/video editor and an English teacher/tutor.

Since childhood, Arabia has felt a personal connection to the church and to God. She gradually began to understand God's calling on her life. When she attended seminary, she felt the call to missionary service.

"My faith journey was strengthened," Arabia said, "and everything started to come together. I had the opportunity to study and serve. I felt the most passionate working alongside people. My faith has kept me through the years and has allowed me to reach this moment in my life where I am sure

of who I am because of who God called me to be.”

In seminary, Arabia traveled to Kenya on an academic scholarship and did missionary service. “I worked at a children’s rescue center,” she said, “and felt more alive than I had ever felt before.” This experience solidified her call to mission: helping God’s children.

“I sought more opportunities to serve,” she continued. “My call to mission in the U.S. is unique because I intended to get ordained and become a pastor. God called me to service, not only in the church, but also in the community in a different capacity.

“I feel alive and closer to God when I am in the realm of mission work. I am thankful for my call to mission and the journey that God has laid before me.”

Established in 1966, the Bennettsville–Cheraw Area Cooperative Ministry serves rural residents of South Carolina’s Marlboro and Chesterfield counties. With four pastors and a combined church membership below 2,500, the cooperative includes one station church (Trinity UMC), two parishes (Cheraw and Bennettsville) and one circuit (Bennettsville Circuit). All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es affiliated with this ministry are traditionally African American congregations.

The primary goal of the BCACM is to strengthen member churches and their communities in lay leadership, advocacy, discipleship and outreach. Individually, the churches struggle to address the needs of the congregations and the community. Working cooperatively, they accomplish more than they could do working individually. BCACM churches understand the value of offering youth and children’s ministries and providing opportunities for them to participate in district, annual conference and General Conference events by pooling resources.

인생의 광야를 전너제 해주는 배



이진희 목사
(웨이코교회, “광야를 읽다”,
“광야를 살다”, “가나안에 거하다”의 저자)

낙타가 없이는 그 누구도 사막에 들어갈 수 없다. 동방박사 세 사람 이야기에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꼭 등장하는 것이 있다. 낙타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타고 왔는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왜 낙타 타고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들은 산을 넘고 바다를 넘어서 온 사람들이 아니다. 광대한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이다. 이란에서 출발해서 이라크 요르단 또는 사우디아라비아반도. 다 끝없는 사막 아닌가? 그러니까 그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올 때 낙타를 타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막에 들어갈 때는 이 낙타가 제일 중요하다. 사막을 걸어 가는데, 낙타가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 그러면 그 낙타에 실었던 짐들은 다 버리고 가야 한다. 낙타가 한 마리밖에 없다. 그것 타고 사막을 횡단하다가 그 낙타가 쓰러져 죽으면, 그 사람도 죽는 것이다.

낙타가 이렇게 사막을 지나는데 중요한데, 낙타는 어떻게 그 광활한 사막을 열흘이나 보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도 잘 갈 수 있는 것일까? 낙타는 등에 불품없이 불쑥 솟아오른 혹이 있다. 흉물스럽고 무겁게 보이지만 물과 지방분을 저장하는 혹이다. 낙타는 그 혹이 있기 때문에 열흘이고 보름이고 그 광활한 광야를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 종일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 사막에 들어갈 때는 누구나 다 낙타를 타고 들어간다. 낙타 없이는 사막에 들어갈 수 없다. 낙타는 사막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배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너무 어렵고 힘들 때가 있다. 다 포기 하고 싶을 때가 있다. 의욕이 다 사라질 때가 있다. 엘리야처럼 로렘 나무 그늘에 누워서 하나님 이제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탄식할 때가 있다. 억울할 때가 있다. 하나님 이것을 말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배신감에 잠 못 이룰 때가 있다.

바다를 건널 때는

배를 타야 한다.

사막을 건널 때는

낙타를 타야 한다.

그러나

인생의 광야를

건널 때는

하나님을 타야 한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광야를 경험한다. 인생이 광야이듯이 목회도 광야다. 광야를 지나다 엘리야처럼 쓰러져 “이래도 목회를 해야 하는 겁니까?”라고 한탄할 때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발로 툭툭 차면서 “너는 목사라는 것이 그것 밖에 못 되냐? 그것 하나 참지 못하고 그만 두겠다고 하느냐?” 그러시는가? 아니다. 천사를 보내신다. 먹을 것을 보내주신다. 충분히 쉬게 하신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좀 쉬거라” 하신다. 그런 다음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그렇게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목회 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광야에서 견뎌낼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몰아붙이지 않으신다. 나무라지 않으신다. 고개를 끄덕이신다. “힘들지? 조금만 더 참으면 돼. 힘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시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신 1:31)

6. 25 때 피난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는가? 우선 급한 대로 보파리 짐을 싸서 아버지는 지계에 짊어지고 엄마는 머리에 이고 그리고 어린 자식들의 손을 꼭 잡고 피난 나왔다. 아주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업고 피난을 나왔다. 조금 더 큰 아이들은 아버지 짐 보파리 위에 올라타고 피난을 나왔다. 업

마, 아버지는 피난길에 말도 할 수 없는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엄마 등에 업히거나 아버지 보파리 짐 위에 타고 온 아이들은 힘든 것 모르고 피난을 나왔다. 천신만고 끝에 서울에 도착했다. 그런데 한강 다리가 끊어져 버리고 만 것이다. 아이들은 수영을 해서 강을 건널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등에 업고 수영을 해서 한강을 건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출 19: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어깨에 메기도 하고 등에 업기도 하고 그렇게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질 때 다시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 우리를 안고 가신다.

초대 교회(3-4세기 경) 때 그런 벽화나 카타콤, 특별히 관 같은데 보면 양과 목자에 관한 그림들이 많이 있다. 거기에 보면 한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다. 이런 모습이 선한 목자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예수님이 잃은 양을 찾아서 어떻게 데리고 왔는가? 어깨에 메고 왔다. 그런데 실제로 목자들은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 양이 길을 잃고 얼마나 놀랐겠는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힘이 다 빠진 것이다. 그래서 목자가 그 무거운 것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것이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다. 어느 날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나있지 않았다.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였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다. “예수님, 왜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은 저를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아야,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단다.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와디 림 사막에 있는 베두인 장막을 방문했던 적이 있다. 양과 염소 합쳐서 한 30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었다. 그 집에 5살 정도 된 아이가 우리를 보더니 어린 양 한 마리를 두 손으로 안고 포즈를 취했다.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아이가 예수님이 양을 품에 안고 있는 성화를 본 것도 아닐 텐데, 양을 들어서 가슴에 안는 것이었다.

성지 순례 차 나사렛에 갔을 때였다. 한 집 사님이 갑자기 통곡을 하셨다. 3일 전에 갓 태어난 예쁘고 하얀 어린 양을 품에 안고 그렇게 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품에 안아주신 그 양이 바로 자기로 느껴졌던 것이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터뜨렸던 것이다.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어서 따라가지 못할 때 그냥 잡아끌거나 채찍으로 때려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번쩍 들어서 어깨에 메고 “힘들지? 내가 안아줄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사 40:11)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도무지 그 광야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그런데 우리가 그런 광야들을 다 통과해서 지금 여기에 와 있지 않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내가 걸어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가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온 것이다.

바다를 건널 때는 배를 타야 한다. 사막을 건널 때는 낙타를 타야 한다. 그러나 인생의 광야를 건널 때는 하나님을 타야 한다!

잊을 수 없는 신앙선배들의 이야기

한국교회사 66가지 명장면들!

02. 국왕 탄신 축하예배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이 나라가 강대국의 침략으로 고통받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특히 1895년 가을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 고종이 친일파 내각에 의해 감금되었을 때 고종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 선교사들이었다.

선교사들은 돌아가면서 고종을 지켰으며, 고종은 선교사 부인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이 아니면 먹지를 않았다. 고종의 둘째 아들 의화군(후에 의친왕)은 아예 언더우드의 사랑방에 숨어 살았다. 그 후 왕은 의화군의 교육문제를 언더우드와 상의하기도 했다.

불안에 떨던 고종은 1896년 2월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겨 약 1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다. 그 해 가을이었다. 음력 7월 25일(양력 9월 2일)은 국왕의 생일이었다. 당시 언더우드는 지방 순회 여행으로 바빴다. 바쁜 와중에서 언더우드는 고종의 생일을 기억하였다. 그는 이날은 반드시 기억되어야 하며, 이런 일에는 선교사들과 한국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언더우드는 먼저 서대문 밖 독립문 근처에 있는 정부 건물을 빌렸다. 이 건물은 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당시로서는 서울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다. 다음으로 언더우드는 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기독교인들의 기도 및 찬양집회가 열릴 것이라고 널리 선전하였다. 단상이 세워지고, 건물은 깃발로 뒤덮였다. 내각의 중심인물과 명망 있는 한국인들이 초청되었다. 단상에는 귀빈들이 앉을 자리와 찬송을 위한 오르간이 준비되어 있었다.

국왕의 생일 축하예배는 대성황이었다. 조선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국왕의 생일을 소홀히 했다는 인상을 주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문을 들은 사람은 거의가 이 예배에 참석하였다. 여기에는 높은 고관과 낮은 평민이 다 같이 참여하였다. 언더우드는 이 집회를 위해 전도지와 찬송가 수천 부를 인쇄하였으며, 이것을 집회 전에 서울 전역에 배포하도록 하였다.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어떤 사건보다도 기독교를 널리 선전해주었다.

이 모임의 절정은 온 회중이 다 함께 부른 국왕의 탄신 축하였다. 이 축가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라는 찬송에 맞추어 불렸다. 축가의 내용은 기독교가 왕

편집자주 | “잊을 수 없는 신앙선배들의 이야기”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초기 한국 교회사를 빛낸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새로워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에게 충성을 권장하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므로 나라의 번영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전체 5절로 된 이 축가의 3절과 5절은 다음과 같다.

“3절:상주의 권능으로 우리의 대군주 폐하 등극하셨네. 이 나라 이 땅은 영세 불멸하겠네. 대군주 폐하, 만만세로다.

5절:홀로 한 분이신 만왕의 왕이시여, 찬미 받으소서. 상주님 경배하는 나라와 백성들
국태민안 부귀영화 틀림없이 받겠네.”

글을 아는 사람들은 축가를 읽었고, 글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읽어 주었다. 이 모임은 기도로 시작되었으며, 여러 신앙적인 연설이 주로 행해졌고, 아울러 애국적인 연설도 있었다. 축가를 다 같이 부른 다음 온 회중이 한목소리로 주기도문을 암송함으로 써 집회는 끝났다. 언더우드는 이 집회를 보면서 감개무량하였다. 기독교가 들어온 지 겨우 10년이 지났는데, 서울에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었다. 이것은 기독교가 더 이상 이 땅에서 멸시받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언더우드는 분명하게 이런 집회의 효과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집회를 통해서 그는 조선에서 기독교의 존재를 공식화하기를 원했고, 사실 이런 그의 생각은 성공했다. 초기 선교사들은 복음의 열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다.

유성준교수가 새로 쓴 세이비어교회 이야기 08

세이비어교회의 핵심 사역원리 2

6. 헨리 나우웬과 워싱턴 DC 라르쉬 공동체

라르쉬 공동체는 이미 잘 알려진 세계적인 장애인 사역이고 세이비어교회가 직접 시작한 고유 사역은 아니지만 가장 세이비어교회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라르쉬 공동체(Larche Community)는 1964년 철학교수 출신인 장 바니에에 의하여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 장 바니에는 처음에는 장애인을 돕는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시작하였지만 점점 그들을 통해 자신도 장애인임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그것은 자신 안에도 미움, 단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상처 등이 있고 자신도 그것들을 안고 살아가는 장애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돕는다는 자세를 버리게 되었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 삶의 순수성을 배우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의미 있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 공동체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함께 '가정' 생활을 한다.

라르쉬 공동체는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웬(Henry Nouwen)에게 많은 영감을 주



었고, 하버드대학 교수직에서 떠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함께 하였던 곳이 캐나다에 있는 라르쉬 공동체였다. 나우웬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두란노, 1998)에서 “나이를 더 먹는다는 것이 예수님께 나를 더 가까이 가게 했는가? 모든 사람이 내게 아주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었지만 나의 성공이 오히려 나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하는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또한, 그때 장 바니에(Jean Vanier)를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로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라. 그러면 그들이 네 영혼을 치유할 것이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토론토의 라르쉬 공동체에서 여생을 보낸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헨리 나우웬은 안식년에 세이비어교회에 머물며 서번트 리더십에 중요한 통찰력을 주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IVP, 1995)를 출간하였다. 나우웬은 이 책에서 내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 깨달아야 될 것을 4가지 단계로 소개하고 있다. 그것은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사용하는 선택받은 자(Taken), 축복 받은 자(Blessed), 상처받은 자(Broken), 나누어 주는 자(Given)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고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의 생애 과정에서 많은 깨어지는 경험을 하고 그런 고통들을 통해 다른 고통 받는 자들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색유리가(Stained Glass)가 한 장으로는 볼품없는 조각이지만 각 조각을 잘라 다듬어서 모양을 만들어 붙이면 아름다운 색유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유익하게 쓰임 받는 원리와도 같다.

나우웬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함정은 성공이나 명예, 권력의 추구가 아니라 그 바닥에 감춰 놓은 자기 거부(Self-Rejection)라고 한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 내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해결책으로 명예나 권력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 유혹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본래적인 자기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교만으로 치장을 한다.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자신을 더 고상하고 높은 자리에 앉히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린 것처럼 우리도 사랑받은 자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랑을 나누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깨달음을 받게 된다.

성찬 테이블에 신앙공동체의 식구들이 함께 둘러앉아 떡을 떼며 서로 축복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서로 섬기며 삶을 나누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나누고 사는 것이 세상의 욕망과 성공, 명예에 대한 기대, 명성을 떨치고 싶은 야망을 버리고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형이다.

나우웬은 “우리는 종종 우리의 행복이 소유에 달려있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소유 때문에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 행복, 내적 평안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때 생기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우리가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발견하게 됩니다”라고 말한다.

워싱턴 DC 라르쉬 공동체는 세이비어교회와 직접 연관을 맺고 시작한 곳으로 워싱턴 DC 온타리오에도 라르쉬 공동체가 있다(2474 Ontario Rd NW Washington, DC). 온타리오 라르쉬 공동체는 1988년에 오래된 주택을 구입하여 새롭게 시설을 보수하여 시작되었다. 겉으로 보기에 지극히 평범하게 보이는 미국식 다세대 주택이다. 두 동의 건물을 내부에서 통하게 하여 한 건물처럼 사용하고, 지하를 제외하고 3층짜리 두 동의 방들을 사용한다.

현재, 워싱턴 DC 지역의 라르쉬 공동체는 온타리오 2곳, 알링턴 2곳, 도합 4곳으로 16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다. 그들을 25명의 스태프가 섬기는데, 몇 명은 함께 상주하고, 나머지는 따로 살면서 낮이나 저녁에 교대로 사역한다. 온타리오 공동체에는 현재 장애인 5명과 비장애인 어시스턴트 4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상주하는 4명 외에 여러 봉사자들이 사역을 돕고 있다. 현재 이곳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 34살, 제일 많은 사람은 83세이다. 이들은 나이가 들며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변화하는 그들의 필요성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곳에 있는 장애인은 다운증후군, 뇌성마비 환자들이다. 응접실에는 이곳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사진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였다.

다른 라르쉬 공동체와 같이 이곳도 장애인과 돕는 비장애인(어시스턴트)이 '상호 관계'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센터를 이용하고 돕는 사람들이 함께 삶을 나누는 공동체이다. 장애인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가벼운 직장 생활도 하고 취미생활, 다양한 교육 참여, 교회생활도 한다. 이곳 사역의 핵심은 '상호적인 관계 형성'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주요 사역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서로 강한 점과 약한 점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함께 살다 보면 다양함이 공존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무엇을 하든지 같이 동역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장애인과 함께 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가 자신의 약함에 대해 보게 되는 것이다. 너무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좋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장애인들을 조정(컨트롤)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가족으로서 함께 사는 것이 공동체의 핵심이라고 한다. 특히 서로를 가족으로 배려한 것을 게시물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사진과 파스함을 느끼게 하는 그림들, 가족애와 관련한 그림들이다.

입주자는 결원이 있을 때만 충원한다. 멤버 중에 공동체를 떠나거나,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면 새로운 사람을 받는다. 공동체가 숫자가 많아지면 '가족' 공동체로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운영에 문제가 있어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지 비용은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과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개인적인 후원금, 기관의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이곳에 가족을 맡긴 장애인 가족은 공동체에 직접적으로 깊이 연관을 가지고 참여한다. 주말에 가족에게로 가는 장애인도 있고, 가족이 이곳에 와서 저녁식사를 함께 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족이나 후견인이 없는 사람도 있고, 가족 중에는 공동체에 전혀 관련이 없고 또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족들은 공동체의 프로그램이나 축하파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현재 스태프들은 모두 상근이며, 시간당 수당을 지급받는다. 더 많은 장소를 운영

하고 싶지만, 운영비도 더 필요하고 제도적인 제약이 많아져서 힘들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라르쉬 공동체는 장애인들에게는 좋은 사례이고 그들의 희망의 상징이 되길 기대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라르쉬 공동체와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장애인들과 진정한 관계 형성이 가능한 공동체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한다.

라르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일이 소명이 되어 헌신하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느냐가 성패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시대 한국교회 가운데 세이비어교회나 라르쉬 공동체의 시설을 세울 수 있는 교회들은 있겠지만 그 일에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는 것이다. 라르쉬 공동체 사역을 방문하며 소명을 위해 생애를 드려 헌신하는 이 시대 살아있는 예수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큰 도전을 받게 되었다.

편집자주 『유성준 교수가 새로 쓴 세이비어교회 이야기』를 새로 연재합니다. 이 책은 세이비어교회와 서번트 목회에 관한 연구들을 담고 있으며 세이비어교회의 실질적 사역 매뉴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난관을 타개할 비전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금번 시리즈를 게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유성준(한국 서번트리더십훈련원장) 목사님과 신앙과지성사에 감사드립니다.

Memo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안애리_뉴년한인교회

2020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두려움, 절망, 슬픔이 있었던 한 해였지만 일년이 지나고 뒤돌아보니 모든 순간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더 강하게 붙드시고 지치지 않게 사랑으로 돌보셨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며 지쳐가던 중 신앙생활을 함께 하던 교회 언니들과 큐티를 시작하였고 의지가 약한 나를 일 년 동안 이어가고 있게 하신다. 동시에 한나미니스트리 단체의 비기너 영어성경암송도 시작하게 되었다. 암송을 한다는 것이 상상도 되지 않았고 자신이 없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외우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나의 입술에서 말씀이 율조려짐이 너무나 신기하고 기뻐졌다. 매일 말씀 암송을 하며, 함께 기도제목을 나누며 크고 작은 체험을 하였다.

미국이 섰다운 되고 모든 게 멈춰버리고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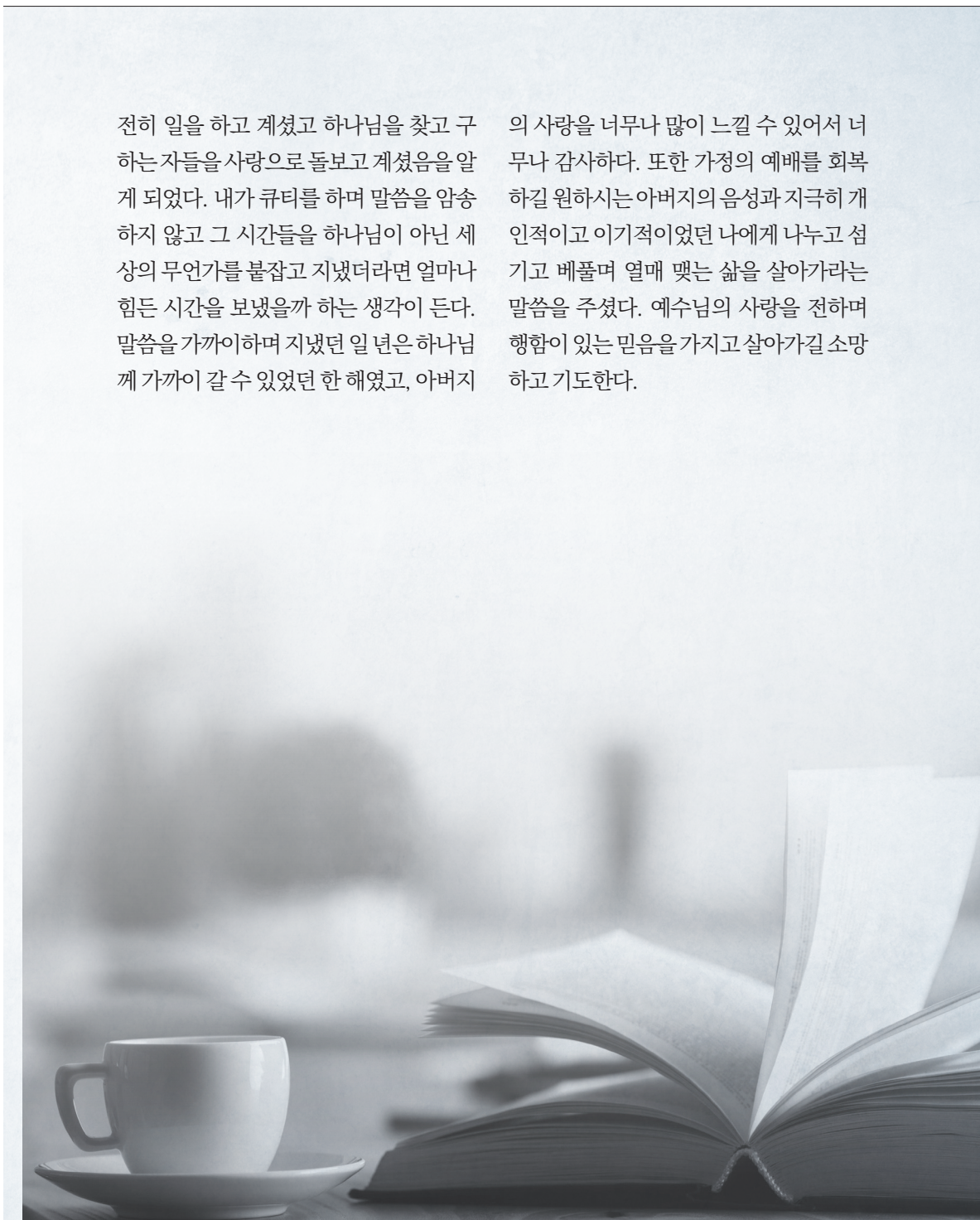
께서는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채워주셨고 우리 가정에 큰 평안과 기쁨을 주셨다. 암송이 힘들어지고 그것으로 지칠 때에도, 마음이 낙심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자매님들 덕분에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나의 상황에 맞는 응답을 주셨다. 매일의 암송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왔다.

한 번은 아이들과 성경 이야기를 하는 도중 7살 딸아이가 가르쳐주지 않은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다. 내가 외웠던 성경 구절을 몇 달이 지나고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의 힘과 생명력이 큼을 느꼈고, 더욱 열심히 암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중에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

전히 일을 하고 계셨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큐티를 하며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무언가를 붙잡고 지냈더라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말씀을 가까이하며 지냈던 일 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던 한 해였고, 아버지

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또한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음성과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었던 나에게 나누고 섬기고 베풀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을 주셨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하고 기도한다.



주님의 유명 반주자

방선정 _ CA 라크라센타연합감리교회

얼마 전 한국 TV 방송에 “나는 무명가수다”란 포맷으로 과거엔 유명했지만 이젠 대중들에게 잊혀진 또는 현재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꾸준히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공감을 나누며 인기리에 방영되었다.

나 또한 ‘무명 반주자다.’ 17년 전 극성 열혈맘으로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라며 부모님과 주변 지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의 취업비자로 6살 아들을 데리고 한국을 떠나 이곳 캘리포니아 LA에 정착하였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중적이라며 또 사이비 종교를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평생을 불교 집안에서 자라온 나는 미국에서의 사교모임과 아이의 교육정보를 위해 어떠한 망설임 없이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난 똑똑하니까 내가 스스로 잘 선택하고 결정한 일이라며, 내가 주님을 선택해 드렸으니 그에 보응하는 축복을 내 아이에게 주

셔야 한다며, 그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최악 중에 최악, 오만방자한 시간들이었는지. 그 모든 일들과 시간들이 주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불러주심이었음을 교회 다닌 지 10년이 지나서야 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어려서 예술 학교를 다녔다는 이유로 교회에 오자마자 공석인 찬양 반주를 맡게 되었고 교회 사정으로 성가대 반주자가 사임했을 때 성가대 반주까지 맡게 되었다.

피아노 연습이 너무 싫어 또 무대 올림증으로 피아노 전공을 중도에 포기한 나로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름의 고충이 있었다. 그럼에도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며 주님이 이끌어주심을 믿고 반주자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팬데믹으로 교인들의 대면 예배가 어렵게 되고 온라인 예배를 위해 성가대의 찬양 대신 매주 지휘자님의 특송으로 현장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1년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 나 에겐 팬데믹 이전보다 더 많은 찬양 연습이

필요했다. 지휘자님이 건네주신 단선악보에 반주 화음을 만들며 몇 키씩 음을 낮추어 달라는 지휘자님의 요청에 일주일 내내 준비하다 보니 찬양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와 동시에 갑작스레 사탄의 시험이 공존하며 다가왔다.

‘불평 없이 아무 말 안 하니 난 으레 반주하는 사람인가? 미리미리 얘기하지도 않고 갑자기 치라면 치는 건가? 주보에 이름 한 줄 없으면서 수고했다는 말은커녕, 남들 한 해 다 수고했다고 할 때도 반주자는 쏙 빼고!’ 때때로 “교회에서 월급도 안 받으면서 뭐 그리 열심이냐”라는 믿음 약한 남편의 터무니 없는 잔소리와 “어차피 자기가 좋아서 반주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아냥거리는 교인의 뒷담화에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었다.

그러던 차에 문득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왔다. “내 딸아, 내가 너를 다 아느니라. 세상 사람에게 듣는 칭찬은 그 순간 10초도 안 되지만 나는 영원하리라.”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다. 처음엔 억울할 것도 없는 내 억울한 일을 철없는 딸을 위해 묵묵히 들어주시고 계신 것 같아. 두 번째론 너무나도 부끄러운 내 모습에, 주님만을 위해 찬양하겠노라고 뻔뻔한 기도로 찬양드릴 수 있음에도 전적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또 혼자만 수고한다고 아직까지 남을 신경 쓴 내 모습이 부끄러워 눈물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일어

나게 하심에 눈물이 흘러나왔다. 이런 내 모습에 그동안 팬데믹으로 거의 1년 동안 교회에 참석치 못한 남편이 먼저 부활절에 교회 같이 가자며 “대단하신 하나님”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올해 부활절(2021년 4월 4일 주일)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날이다. 미국에 이민 온 지(2004년 4월 4일 주일) 정확히 17년 되는 날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고 더 많은 기쁘고 행복했던 시간들을 선물로 주신 주님!! 우리 가족을 미국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늘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님을 이 순간도 찬양합니다.

또한 평생을 불교신자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며 살아오신 친정어머님의 기적 같은 소식!! 이해도 안 되고 말로도 글로도 표현할 수도 없는 역사적인 사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고자하시면 못 하실 일 없는 주님의 역사 하심으로 친정어머니가 작년에 세례를 받으시고 한국에서 첫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살리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언제까지 교회의 반주자로 주님이 사용하실지는 모르지만 나는 더 이상 무명 반주자가 아닌 영원한 주님의 유명 반주자이다.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함께 걷는 '기쁨의 언덕으로'

나의 일기, 묵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쁨의 언덕으로'

한/영 이중언어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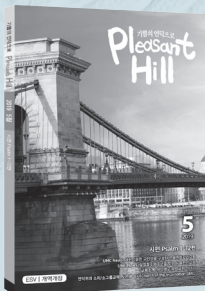
하루에 한 장 성경읽기, 말씀묵상, 저널링,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기쁨의 언덕으로'

한 권에 \$ 3.5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언덕으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척교회는 물론 캠퍼스, 군대,
교도소로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권을 후원하면 매월 \$ 35 per month

20권

매월 \$ 70 per month

30권

매월 \$ 105 per month

50권

매월 \$ 175 per month

100권

매월 \$ 350 per month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운동

Email :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 Email: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books>

말씀묵상 길라잡이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 후원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기쁨의 언덕으로'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묵상집입니다.

이 묵상집은 이민자들의 영성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시작했고,
이민교회를 위한 이중언어 말씀묵상 길라잡이로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위해 목회자 기획위원, 평신도 편집위원,
영어번역위원 등이 모두 자원하여 봉사하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기쁨의 언덕으로'를 섬기는 집필팀 워크샵,
평신도 편집위원 수련회, 개체교회를 섬기는 QT 컨퍼런스, 기획위원,
편집위원, 번역위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후원하길 원합니다.

매월 ☐\$10 ☐\$20 ☐\$30 ☐\$50 ☐\$100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함께 후원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운동

Email :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Email :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ministry>



“미 전역에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은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합니다!”

지금 교회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kumcdevotion@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Alabama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주님의교회 (유혁재, 334-279-1935)
버밍햄한인연합감리교회 (지홍일, 205-957-0595)
프렛빌한인교회 (홍성국, 334-221-9392)
현스빌감리교회 (256-489-1158)

• **Alaska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 (금원재, 907-346-2886)

• **Arizona (애리조나 주)**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 (이기용, 480-423-7777)
투산제일연합감리교회 (고은영, 520-760-9749)

• **Arkansas (아칸소 주)**

소말연합감리교회 (조선옥, 501-308-4127)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 (정형권, 479-263-5434)

•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현, 831-333-6857)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 (박용삼, 714-534-6378)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 (이석부, 310-973-5106)
나성복음연합감리교회 (김호웅, 323-641-0691)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 (조승홍, 213-747-4209)
남가주주님의교회 (김낙인, 626-965-9191)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 (최요셉, 818-886-1555)
드림교회 (정영희, 626-793-0880)
라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 (림학춘, 949-380-7777)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 (김도민, 714-226-0300)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창민, 310-645-3699)
로스웰리즈연합감리교회 (신병욱, 323-382-0691)
벤나이스연합감리교회 (이상호 818-785-3256)
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 (안정선, 818-366-0089)
버클리새교회 (김종식, 510-526-7346)
베델연합감리교회 (한인희, 408-244-8710)

사랑나무교회 (이상호, 818-346-1617)
산타마리아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 (남기성, 805-922-1004)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권혁인, 408-295-4161)
상향한국인연합감리교회 (송계영, 415-759-1005)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 (정상용, 858-279-9191)
시온연합감리교회 (오경환, 310-834-5504)
어바인드림교회 (949-786-8354)
언약교회 (이상호, 909-622-8815)
영화연합감리교회 (강현철, 213-413-4154)
열린교회 (김규현, 510-652-4155)
예수사랑교회 (이강원, 408-746-9553)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 (정현성, 510-451-9076)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남재현, 805-485-0100)
온타리오 감리교회 (전재홍, 909-986-6641)
유바사랑의교회 (이진식, 925-279-1214)
월셔연합감리교회 (구진모, 323-931-9133)
은강연합감리교회 (김태호, 714-870-9991)
은혜연합감리교회 (한진호, 818-241-9352)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 (산상만, 805-302-1706)
좋은연합감리교회 (김두식, 916-987-9191)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 (김범수, 310-473-1285)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영, 805-389-3161)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 (김용근, 818-541-0306)
태평양연합감리교회 (이도원, 323-255-3734)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 (강현중, 213-235-7659)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 (김명래, 925-935-0191)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 (김규현, 559-299-0240)
희망교회 (김정민, 858-354-0009)
히스패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 (민병렬)

• **Colorado (콜로라도 주)**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 (주황, 303-369-0600)
덴버연합감리교회 (이선영, 720-529-5757)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 (전병욱, 303-753-8823)

푸에블로한인교회(최운선, 719-544-5739)
한미연합감리교회(이지성, 719-570-0300)

• **Connecticut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최영, 203-387-1579)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김정환, 860-365-0233)
하트포드한인교회(최우돈, 860-953-0141)

• **Delaware (델라웨어 주)**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송종남, 302-235-5735)

• **Florida (플로리다 주)**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이철구, 954-739-8581)
올랜도한인연합감리교회(김호진, 407-801-2731)
탈라하사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권, 850-228-1414)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한명훈, 813-907-5815)
헤르난도한인교회(윤대섭, 352-726-7245)

• **Georgia (조지아 주)**

노크로스한인교회(박희철, 678-978-2099)
뉴난한인감리교회(남성원, 770-683-9381)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김형렬, 706-407-8296)
사버나한인연합감리교회(박진원, 912-355-8225)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송희섭, 770-495-8020)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남궁전, 678-546-5700)
아틀란타한인교회(조영진, 678-381-1004)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이준협, 770-321-0020)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서정일, 770-497-8215)
트리니티 한인교회(김경근, 678-431-7924)
해밀턴말한인교회(정찬웅, 770-271-4255)
하인스빌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길, 912-368-4875)

• **Hawaii (하와이 주)**

갈보리연합감리교회(남규우, 808-386-9672)
감람연합감리교회(이영성, 808-956-1004)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한익준, 808-536-7244)
베다니연합감리교회(원홍연, 808-626-7434)
아름다운교회(오대현, 808-343-6839)
아이에이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현, 808-488-3018)
올리브연합감리교회(김배선, 808-622-1717)

• **Illinois (일리노이 주)**

갈릴리연합감리교회(염모성, 847-998-4610)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기, 708-799-0001)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최기환, 630-904-9191)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일, 309-768-2663)

비전교회(우민혁, 847-949-9705)
올랜드팍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이동근, 708-403-2007)
예수사랑감리교회(오치용, 217-419-5132)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김태준, 847-534-2826)
샘물연합감리교회(박미숙, 847-712-0413)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조선형, 847-372-6057)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847-541-9538)
중앙연합감리교회(홍진호, 847-797-1144)
하이드팍한인교회(이우민, 773-643-2144)

• **Indiana (인디애나 주)**

블루밍턴한인교회(안성용, 812-331-2080)
인디애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이기채, 317-894-4456)
퍼듀제자교회(이종민, 217-417-2288)

• **Iowa (아이오와 주)**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이병훈, 515-261-0600)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최군임, 319-337-8397)
에임스사랑의교회(이병훈, 515-233-1063)
과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조항백, 563-359-4227)

• **Kansas (캔자스 주)**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임일호, 316-239-6883)
정선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문주현, 785-762-4344)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송명철, 913-648-4277)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정용재, 620-231-2540)

• **Kentucky (켄터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상순, 270-439-3297)

• **Louisiana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이동섭, 504-455-7883)
리스빌연합감리교회(나길석, 337-537-5977)

• **Maine (메인 주)**

무지개연합감리교회(조태섭, 207-774-1617)

• **Maryland (메릴랜드 주)**

늘사랑연합감리교회(박종희, 443-763-4566)
베다니한인교회(박대성, 410-979-0691)
성령의불꽃교회(유재유, 703-276-8018)
솔즈베리한인연합감리교회(정남성, 410-860-0090)
에덴연합감리교회(신요섭, 667-206-4162)
워싱턴감리교회(이승우, 301-309-6856)
하늘비전교회(장재웅, 410-200-3859)

• **Massachusetts(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연합감리교회(안신형, 781-393-0004)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최진웅, 978-470-0621)
비전교회(이충호, 617-864-1123)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조상연, 781-861-7799)
안다옥한인연합감리교회(강명석, 978-534-3394)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태, 508-799-4488)

• **Michigan(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김대기, 248-545-5554)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김응용, 248-879-2240)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TroyHope(Anna Moon, 248-879-2240)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조현준, 734-662-0660)

• **Minnesota(미네소타 주)**

멘케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유승찬, 507-382-6070)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윤국진, 952-938-2142)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백성범, 651-633-2434)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박형두, 612-859-5882)

• **Missouri(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명균, 314-426-5683)

• **Nevada(네바다 주)**

겨자씨한인연합감리교회(이기용, 702-595-3678)
라스베가스한인연합감리교회(라은진, 702-434-9915)

• **New Hampshire(뉴햄프셔 주)**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한상신, 603-430-2929)

• **New Jersey(뉴저지 주)**

가득교회(이강, 908-464-1807)
갈보리연합감리교회(문정용, 732-613-4930)
그레이스벨교회(장학범, 201-242-8866)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박태열, 609-965-1222)
뉴저지연합교회(고한승, 201-816-1284~5)
뉴저지영광연합감리교회(임희영, 201-939-9726)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애, 973-994-0450)
리지우드연합감리교회-한여회중(안성훈 914-548-1685)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정호석, 732-542-4321)
모리스타운한인교회(최상훈, 973-252-5252)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백승권, 973-694-3880)
아쿨라연합감리교회(안명호, 201-843-7970)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조민호, 973-256-6831)
제자교회(이영기, 201-394-8446)
주님의은혜교회(최준호, 973-563-5365)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856-424-9686)
코너스톤교회(정희섭, 201-767-1172)
티벳한인연합감리교회(이재덕)

• **New Mexico(뉴멕시코 주)**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김기천, 505-341-0205)

• **New York(뉴욕 주)**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정창훈, 347-233-1117)
뉴드립교회(김남석, 516-504-5612)
뉴욕감리교회(강원근, 516-681-0164)
뉴욕그레이트교회(양민석, 917-326-1723)
뉴욕남산교회(이요섭, 718-680-0328)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이종범, 718-701-4953)
뉴욕반석교회(김동규, 516-997-8620)
뉴욕베델교회(진세관)
뉴욕성서교회(김종일, 631-243-5683)
뉴욕주나목교회(문정용, 718-229-4024)
뉴욕한인교회(최현덕, 212-662-1422)
로체스터제일교회(이진국, 585-662-5560)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동기, 585-872-0188)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김재현)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유명철)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김진우, 212-758-1040)
미드허스트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태)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국재현, 716-748-5886)
부르클린한인연합감리교회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718-984-3333)
시라큐스스망연합감리교회(양현주)
아스토리아한인교회(전성인, 718-626-1278)
우리감리교회(김동현, 347-935-9348)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유화성, 518-387-9078)
웨체스터중앙교회(신승호, 914-948-8835)
퀸즈중앙감리교회(이요섭, 718-359-8388)
후라싱제일교회(김정호, 718-939-8599)

• **North Carolina(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서준석, 336-852-8535)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엄성일, 919-469-1514)

• **Ohio(오하이오 주)**

맨스필드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9)
데이튼한인연합교회(유준식, 937-294-2018)
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이미란, 614-451-2085)
새생명연합감리교회(전기상, 248-659-7882)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근상, 614-764-8960)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석, 330-743-7020)

캔톤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8)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장이준, 614-882-5819)
 한마당연합감리교회(440-845-1728)
 한인메디슨빌연합감리교회(우용철, 513-271-1434)

• Oklahoma(오클라호마 주)

새빛연합감리교회(정기영, 580-536-6884)
 오클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엄준노, 405-672-5062)
 텔사한인연합감리교회(손태원, 918-622-0045)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김관영, 580-237-6611)

• Oregon(오리건 주)

오레곤우리연합감리교회(박은수, 503-641-7887)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오광석, 503-684-7070)

• Pennsylvania(펜실베이니아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득신, 215-280-5768)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김중혁, 610-867-4437)
 벤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차명훈, 215-639-3120)
 소망한인연합감리교회(717-731-9190)
 인디애나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덕, 724-465-2015)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홍정균, 215-542-5686)
 필라델피아교회(조병우, 215-884-5251)

• Rhode Island(로드아일랜드 주)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선우혁, 401-739-8439)

• South Carolina(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연합감리교회(신규석, 864-567-3633)
 찰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배연택, 843-797-8199)
 쿨럼비아한인연합감리교회(나웅철, 803-447-6186)

• Tennessee(테네시 주)

내쉬빌한인교회(강희준, 615-373-0880)

• Texas(텍사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득건, 214-901-1116)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조낙훈, 469-235-8041)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박광배, 972-231-0057)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이성철, 972-258-0991)
 동산연합감리교회(유화청, 713-722-9553)
 동화연합감리교회(박경원)
 러벅연합감리교회(김다니엘, 316-218-8498)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박창수, 409-554-0550)
 성누기연합감리교회(소정일, 254-526-3993)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배혁, 210-341-8706)
 우리만나연합감리교회(오요한, 817-657-4559)

월리암스메모리연합감리교회-한인회중(이병설, 903-794-2882)
 웨슬리연합감리교회(주요한, 972-276-2098)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이진희, 254-757-2621)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권성철, 214-238-2003)
 칼린우리연합감리교회(전대우, 254-245-8029)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정용석, 713-462-0708)
 St. Peter's UMC-Katy 한어회중(김데이빗, 281-541-6286)

• Vermont(버몬트 주)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배상철, 802-876-7622)

• Virginia(버지니아 주)

가나연합감리교회(박주선, 703-339-8899)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홍성욱, 757-484-5988)
 새빛교회(김은관, 703-385-3390)
 성가연합감리교회(최윤석, 757-877-2270)
 알링턴한인교회(류영성, 703-489-4596)
 애쉬번한인교회(강현식, 703-336-3679)
 엠마오연합감리교회(김철기, 804-272-5831)
 와싱턴사공의교회(김영봉, 703-939-0559)
 와싱턴제일교회(정성호, 571-401-3872)
 와싱턴한인교회(김영호, 703-448-1131)

• Washington(워싱턴 주)

시애틀연합감리교회(박세용, 206-406-6499)
 좋은씨앗교회(정요셉, 253-363-3169)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박응규, 253-589-0882)

• Washington D.C(워싱턴 D.C)

알파커뮤니티한인교회(202-680-2394)

• West Virginia(웨스트버지니아 주)

헌팅톤제일한인연합감리교회(최연, 304-522-0357)

• Wisconsin(위스콘신 주)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황선중, 973-525-9584)
 애플톤시온연합감리교회(정희권, 920-687-9191)
 참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김성근, 414-425-2530)
 케노사한인연합감리교회(이대규, 262-658-1131)

• GAUM(괌)

괌한인선교교회(김택수)

• Russia(러시아)

모스크바연합감리교회(조수진, 011-8-963-617-8439)

성경진도표

2023/01			2023/02			2023/03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주일	01	사사기	1	01	사무엘상	1
02	에베소서	1	02		2	02		2
03		2	03		3	03		3
04		3	04		4	04		주일
05		4	05		주일	05		4-5
06		5	06		5	06		6-7
07		6	07		6	07		8
08		주일	08		7	08		9
09	갈라디아서	1	09		8	09		10
10		2	10		9	10		11
11		3	11		10	11		주일
12		4	12		주일	12		12
13		5	13		11	13		13
14		6	14		12	14		14
15		주일	15		13	15		15
16	빌립보서	1	16		14	16		16
17		2	17		15	17		17
18		3	18		16	18		주일
19		4	19		주일	19		18
20	골로새서	1	20		17-18	20		19
21		2	21		19	21		20
22		주일	22		20	22		21-22
23		3	23		21	23		23
24		4	24	룻기	1	24		24
25	데살로니가전서	1	25		2	25		25
26		2	26		주일	26		주일
27		3	27		3	27		26
28		4-5	28		4	28		27:1-28:2
29		주일				29		28:3-29:11
30	데살로니가후서	1-2				30		30
31		3				31		31

2023/04			2023/05			2023/06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사무엘하	1	01	다니엘	1	01	욥기	1
02		고난주간	02		2	02		2-3
03		H-1	03		3	03		4-5
04		H-2	04		4	04		주일
05		H-3	05		5	05		6-7
06		H-4	06		6	06		8
07		H-5	07		주일	07		9-10
08		H-6	08		7	08		11
09	부활절	주일	09		8	09		12-14
10		2	10		9	10		15-17
11		3-4	11		10	11		주일
12		5	12		11	12		18-19
13		6	13		12	13		20-21
14		7	14		주일	14		22
15		8-9	15	호세아	1	15		23-24
16		주일	16		2:1-13	16		25-26
17		10	17		2:14-23	17		27
18		11	18		3	18		주일
19		12	19		4	19		28
20		13	20		5	20		29-30
21		14	21		주일	21		31
22		15-16	22		6	22		32
23		주일	23		7	23		33-34
24		17	24		8	24		35-36
25		18	25		9	25		주일
26		19	26		10	26		37
27		20-21	27		11	27		38-39
28		22	28		주일	28		40
29		23-24	29		12	29		41
30		주일	30		13	30		42
			31		14			

2023/07			2023/08			2023/09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역대상	1-2	01	역대하	5	01	사도행전	1
02		주일	02		6	02		2
03		3-4	03		7	03		주일
04		5-6	04		8-9	04		3
05		7-9	05		10-11	05		4
06		10	06		주일	06		5
07		11	07		12	07		6-7
08		12	08		13	08		8
09		주일	09		14	09		9
10		13	10		15	10		주일
11		14	11		16	11		10
12		15	12		17	12		11
13		16	13		주일	13		12
14		17	14		18-19	14		13
15		18	15		20	15		14
16		주일	16		21-22	16		15
17		19	17		23	17		주일
18		20	18		24	18		16
19		21	19		25	19		17
20		22	20		주일	20		18
21		23	21		26	21		19
22		24-25	22		27-28	22		20
23			23		29	23		21
24		26-27	24		30	24		주일
25		28	25		31	25		22
26		29	26		32	26		23
27	역대하	1	27		주일	27		24
28		2	28		33	28		25-26
29		3	29		34	29		27
30		주일	30		35	30		28
31		4	31		36			

2023/10			2023/11			2023/12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주일	01	예레미야	29	01	요한복음	1
02		1	02		30	02		2
03		2	03		31	03		주일
04		3	04		32	04		3
05		4	05		주일	05		4
06		5	06		33	06		5
07		6	07		34	07		6
08		주일	08		35	08		7
09		7	09		36	09		8
10		8-9	10		37	10		주일
11		10	11		38	11		9
12		11	12		주일	12		10
13		12	13		39	13		11
14		13	14		40-41	14		12
15		주일	15		42	15		13
16		14	16		43	16		14
17		15	17		44-45	17		주일
18		16	18		46-47	18		C-1
19		17	19		주일	19		C-2
20		18	20		48	20		C-3
21		19-20	21		49	21		C-4
22		주일	22		50	22		C-5
23		21	23		51	23		C-6
24		22	24		52	24		주일
25		23	25	예레미야애가	1	25		15
26		24	26		주일	26		16
27		25	27		2	27		17
28		26	28		3	28		18
29		주일	29		4	29		19
30		27	30		5	30		20
31		28				31		21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Nehemiah Project P.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이메일	kumcdevotion@gmail.com
❖ 발행인	류재덕(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장)
❖ 운영위원장	이성현(한인총회 느헤미야 운동)
❖ 편집인	류계환(한인총회 선교총무)
❖ 편집기획	박효연
❖ 영어번역	김영실, 박길재, 양훈, 엄운호, 홍사라, Ester Kim
❖ 목회자 기획위원	강현중, 김진우, 박효연, 방승호, 배연택, 배혁, 서준석, 유혁재, 조기현, 차세진
❖ 평신도 편집위원	유경진, 조속희, 하금숙, 조윤희
❖ 편집문의	kumcdevotion@gmail.com
❖ 배송/결제문의	salesusa@hosanna.net 562-944-5344 (호산나미디어)

함께 하신 분들

❖ 언덕 위의 소리(Voices from The Hill) / 소그룹 모임 교재

김진우 목사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 NY)

❖ 주일 칼럼

김영봉 목사 (와싱턴사감의교회, VA)

김정호 목사 (후러싱제일교회, NY)

이승우 목사 (워싱턴한인연합교회, MD)

이창민 목사 (LA 연합감리교회, CA)

- The ESV® Bible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ESV® Text Edition: 2011. The ESV® text has been reproduced in cooperation with and by permis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is prohibited. All rights reserved.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is adapted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ll rights reserved
- Illustrations by Swiss artist and storyteller Annie Vallotton, as taken from the Good News Translation® 1976, 1992 American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 Copyright by HOSANNA & OneBody
- 구독변경 및 신청문의 salesusa@hosanna.net